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몰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300호

Tuesday, May 20, 2025 A

"미국이신뢰 갉아먹고 있어 오래가지 못할 것"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미국은 신 뢰를 갉아먹고 있어 오래가지 못할 것" 이라는 발언이 나와 새 정부 출범 이후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 날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에 대해 설명하다가 "미국의 기본적 전략이 미 국 국민들에게도 수용이 잘 안 될 것이 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처럼 소프트파 워를 다 갉아먹으면서 미국이라는 신 뢰, 믿음 이런 걸 다 갉아먹으면 오래 못갈것이라고본다"고말했다.

이어 "결국 어느 시점에선 제동이 걸 릴 텐데 그때까지 잘 견디는 게 중요하 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우리가 맨 먼저 나서서 서둘러서 협상을 조기 타 결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대미 수출 감소 등이 지 표로 뚜렷하게 확인되는 가운데 '버티 는 게 협상 전략'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19일 블룸버그통신은 미· 중 간 '관세 휴전' 뒤 경제 대국을 중심 으로 신속한 외교적 접근법이 올바른



길인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면서도 이 는 중국 등에만 제한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입 장을 바꾸도록 자기 출혈을 감수하는 '치킨 게임'을 버틸 수 있는 나라는 사 실 많지 않기 때문이다.

버트 호프만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블룸버그에 "경제 규모가 크고 미국과 의 무역 의존도가 낮은 나라만이 (중국 처럼)강경 대응이 가능하다"며 "대다 수 국가에게 미국과 맞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대미 수출의 존도가 높은 한국이 미국이 먼저 양보 할 때까지 버티면 된다는 전략은 다소 안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후보는 한 미 동맹, 한 미 일 협력 을 강조하면서도 "완전히 몰빵, 올인해 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중국에도 셰셰(謝謝, 고맙다) 하고 대만에도 셰 셰 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 말든 우리 와 무슨 상관이냐"는 이른바 '셰셰 발 언'의 취지를 유지한 셈이다.

실제 이 후보는 대만 유사시와 관련, "대만과 중국의 분쟁에 우리가 너무 깊 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며 "현상을 존 중하고 우리는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고 답했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는 "트럼프가 '한국이 북한하고 싸우 면 어때. 우리는 둘 다 셰셰하면 되지' 하면 곤란하지 않으냐"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실용외교를 강조하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이는 국 제 질서가 이미 미·중을 필두로 뚜렷하 게 진영화된 마당에 한국이 진영을 가 리지않고모든나라와두루잘지낼수 있다는 인식이 현실적이냐는 질문으 로 이어진다. 이 후보는 "중국, 러시아 와 굳이 적대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불법 파병까지 감행한 북・러 간 군사 동맹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리벤지포르노 삭제법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 후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딥페이크와 리벤지 포르노를 포함한 불법 이미지 와 동영상을 강제 삭제하도록 규정한 법안(Take It Down Act)에 서명했다.

초당적으로 양원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AI 소프트웨어로 만든 '디지털 위조물' 등 을 고의로 게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소셜 미디어와 유사한 웹사 이트가 피해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해 당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웹사이트와 소셜 미 디어 회사는 피해자로부터 통보를 받 은 후 48시간 이내에 해당 콘텐츠를 삭 제해야 한다. 현재 20개주에서 유사한 법률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AI 등 IT 발달로 리벤지 포르노 와 관련된 딥페이크 제작이 훨씬 쉬워 졌다. 법안을 주도한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공화, 텍사스)은 "특히 어린 소녀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가짜 성적 이미지를 퍼뜨리기 위해 신 기술을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너무 많 아 법안이 시급했었다"고 밝혔다.

신용등급하락, 부채 증가…해결책은 감세

지난 16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면서 국 가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로 이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4년 말, 연방정부의 부채는 36조 달러에 이른다. 2000년대 초 5조 달러 에 불과하던 부채는 25년 만에 일곱 배 넘게 늘었고, GDP 대비 부채 비율도 100%를 초과했다.

2020년 3450억 달러였던 연간 이자 비용은 2024년 8820억 달러로 2.5배 이 상증가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서 5년새 세배 정도의 증가율을 보일 것 으로 예상된다. 부채 이자 상환비용은 전체 예산의 최대 14%로, 심지어 메디 케어와 국방비 지출액보다 많다.

사상 최악의 부채에도 불구하고 올 해 채권 발행 규모는 또다시 사상 최대 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차환예정인 채권 9조 3000억 달 러 대부분이1-2%대 이자율로 발행한 것인데, 이를 갚기 위해 4-5% 이자율 로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감세안을 통해 낙수효과를 거둬 경제가 활성화 되면 더 많은 세금을 거둬 국가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자와 기업의 세금을 줄이면 투자 와 고용이 늘고 그 혜택이 서민에게도 흘러간다는 것이다. 김옥채 기자

트럼프 감세법안, 하원 본회의 표결 임박

박현주 기자

하원예산위 17대 16으로 통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된 감세 법안이 18 일 밤 연방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했 다. 예산위를 통과한 법안은 하원 운영 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2일(목)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 의장은 메모리얼 데이(26일) 이전에 법 안을 가결하고 싶다고 전했다.

새 감세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 1기 행

정부 당시 시행된 2017년 한시적 감세 법률을 영구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성사되면 올해말 종료예정인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의 조항이 추가연장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 던 팁-초과근무수당 면세, 미국산 자 동차 구입시 오토론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함돼 있다.

김옥채 기자









Annandale

703.988.0033 MENN 301.792.5615 H-Mart U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410-988-5523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Korean v

먼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각 나라발 언이를 매성, 권리하 는 차별화된 흥지어

관리



Care

People

Home Health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페어팩스, 센터빌, 리치몬드, 뉴폿뉴스 북버지니아와 남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entreville (Main Office)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6/2 ~ 6/6 → 전화 예약 필수!

CarePeople.net

- 센터빌 & 애난데일 오피스 (한국어, 영어 가능하신 분) - Billing Coordinator -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Annandale (V)

Gaithersburg (MD)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FBI 워싱턴DC 떠난다"

파텔국장발언 트럼프 대통령은 잔류 희망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워싱턴DC 본부 건물을 떠나 1500여 명 직원을 이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파텔 국장은 "현재 펜실베이니아 애비 뉴 선상의 에드거 후버 빌딩은 매우 안 전하지 못한 못해 결국 떠날 것"이라며 "우리는 전세계 최고의 법집행기관에 걸맞은 건물에서 일해야하는데, 에드 거 후버 빌딩은 아니다"고 밝혔다.

파텔 국장은 기존의 본부건물 재배치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길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방조달청(GSA)는 16 년째 FBI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 다. GSA는 2023년 11월 메릴랜드 그린 벨트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도 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월에 FBI가 워 싱턴 DC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에드거 후버 빌딩이 부동산 매 물로 내놓았다가 24시간도 안돼 삭제 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즉각 이 계 획을 중단하고, 현재 본부 위치에 새로 운건물을세울것"이라고단언했다.



GSA는 10년 이상의 논란 끝에 2023 년 11월9일 FBI본부 건물을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그린벨트로 이 전을 확정했지만 버지니아 지역 정치인 들이 전면적인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 다. 본부 이전을 반대해 왔던 크리스토 퍼 레이 국장도 선정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GSA는 "메릴랜드 그린벨트가 워싱 턴DC에서 13마일(2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공사비용이 가장 적게 들 고 메트로역이 인접해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다"면서 "지속가능성은 물론 공 정성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밝힌 바 있다.

버지니아 지역 연방상하원의원들은 GSA 감사국이 FBI 본부건물 이전 프 로젝트에 대한 전체 감사결과를 도출

하기 전까지 일체의 프로젝트 시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었다.

메릴랜드 정치권은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의혹은 일체 없기에 예정대로 프 로젝트를 시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 된다면 두 주는 공동전선을 펼 가능성 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 령과 파텔 국장이 이미 이전에 대한 합 의를 끝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FBI 직원들을 미국 전역에 분산 배치하는 것이라는 분석 이 제기됐다.

파텔 국장은 "FBI 인력 3만8천명 중 워싱턴 지역에만 1만1천명이 일하지만, 미국 범죄의 1/3이 이곳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현재 1만1천명중 1500명을 다른 곳으로 배치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DC 시 장은 "FBI 본부가 미국의 수도와 법무 부 근처에 있는 것은 미국을 더 안전하 게 지켜줄 것"이라며 "우리는 FBI가 안 전하고 현대적인 보안 시설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많은 부지가 있다"고 말 김옥채 기자

당겨졌다. 취업이민 2순위의 접수가능

우선일자 역시 기존 2023년 8월 1일에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경우에

김은별 기자

는 비자발급 우선일자만 1개월 1주 진

서 2023년 11월 15일로 진전했다.

워싱턴 지역 단신

연방대법원 베네수엘라임시 보호지위 박탈 허용

연방대법원은 행정부가 미국 내 베 네수엘라 국민 35만명의 임시 보호 지위를 박탈하는 정책이 정당하다 고 19일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인의 임시 보호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을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 법원이 막 아서자, 대법원에 이들의 지위 박탈 이 가능하도록 청원 소송을 제기했 으며, 대법원이 이를 승인한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정치·경제 위기 상황 으로 수백만명의 시민들이 남아메 리카 다른 지역이나 미국, 멕시코 등 으로 이주해있다. 미국에도 약 35만 명이 이주한 상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임시 보호 지위를 부여했 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법적 지위를 종료시켰다. 4월31일 샌프란시스 코 연방법원이 보호 조치가 유효하 다고 판결해 제동을 걸었으나, 연방 대법원 판결로 다시 번복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시 외국인 적대 법'(Alien Enemies Act)을 이용해 외국 갱단원이라고 의심되는 사람 들을 구금하고 추방해왔다.

해충 '랜턴플라이' 워싱턴 지역 목격돼

워싱턴지역에 외래 곤충 랜턴 플라 이가 계속 목격되고 있다. 랜턴 플라 이는 흑백 점박이 문양을 지닌 곤충 으로 나무와 식물을 갉아먹어 고사

시키고 있다. 랜턴플라이는 중국과 동남아지역이 원산지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됐으며, 최근 워싱턴 지역에서도 목격되고 있다.

가계부채 워싱턴DC 20만불, MD 볼티모어 10만불

워싱턴지역 주민들의 가계부채가 감 소세를 보이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최근 자료 에 의하면, 올해 1분기 워싱턴DC 가 구당 평균 부채는 20만3795달러로 전분기 대비 875달러 감소했다. 메릴 랜드 볼티모어도 428달러 감소한 9 만9692달러를 기록했다. 워싱턴 지 역 시티 중에서는 버지니아 체사픽 이 32만9870달러로 가장 많았다.

가계부채는 주택 모기지가 대부 분을 차지하지만 학자금 융자, 자동 차 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도 상당

버지니아 실업급여 신청 급증

지난 주(5월4일-5월10일) 버지니아 실업급여 신규 신청 건수가 3920건 으로, 직전 주의 2720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22만9천건으로 직 전 주와 비슷했다.

54 703 - 489 - 6926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마약성 진통제 처방 남발한 의사 징역 13년형

버지니아 동부연방지방법원 재판 부가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옥 튼의 개업의사 데이빗 알링햄(65 세)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피고는 2019년 4월부터 2024년 1 월 사이 모두 40만5천정 이상의 옥 시코돈과 1만3500정의 암페타민 마

약성진통제를 체중감량 등의 용도 로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는 적절한 신체 검진 절차 없이 처방을 남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처 방한 환자 두 명 이상이 약물 과용 으로 사망했다.

김옥채 기자

가족·취업이민문호진전

국무부, 6월 영주권 문호 발표

영주권 문호가 6월에는 일제히 소폭 진전 흐름을 보였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2025년 6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일부 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 문호가 일 제히 진전했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 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6 년 3월 15일에서 2016년 6월 8일로 2개 월 3주 진전했다.

가족이민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 상 성년 미혼자녀) 문호 역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16년 7월 22일에서 2016 년 9월 22일로 2개월 진전했으며, 가족 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의 비 자발급 우선일자는 2011년 4월 1일에서 2011년 6월 22일로 2개월 3주 진전했다. 예상보다 더 앞

다만 가족이민 중에서도 2A순위 (영주권자 직계가족)와 4순위(시민권 자 형제자매)는 기존과 같았다. 의 접수가능 유 호와 같은 수준

그동안 답답 업이민의 경우. 된 모습을 보였다.

취업이민 2순 위(석사학위 소 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 는 2023년 6월 22일에서 2023 년 10월 15일로

는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했다. 기존 문호 2023년 1월 1일에서
. 또한 가족이민 전 순위	2023년 2월 8일로 변경됐다. 취업이민
우선일자 문호는 5월 문	3순위 숙련직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돈으로 동결됐다.	2023년 3월 1일로 기존과 같았다.
납한 흐름을 이어가던 취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문호도
² , 2~3순위 문호가 진전	앞당겨졌다.

2025년 6월 중 영주권 문호								
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 우선일자					
	1	2016년 6월 8일 (2016년 3월 15일)	2017년 9월 1일 (2017년 9월 1일)					
	2A	2022년 1월 1일 (2022년 1월 1일)	2025년 2월 1일 (2025년 2월 1일)					
가족이민	2B	2016년 9월 22일 (2016년 7월 22일)	2017년 1월 1일 (2017년 1월 1일)					
	3	2011년 6월 22일 (2011년 4월 1일)	2012년 7월 22일 (2012년 7월 22일)					
	4	2008년 1월 1일 (2008년 1월 1일)	2008년 6월 1일 (2008년 6월 1일)					
	1	오픈 (오픈)	오픈 (오픈)					
	2	2023년 10월 15일 (2023년 6월 22일)	2023년 11월 15일 (2023년 8월 1일)					
*1040101	3	2023년 2월 8일 (2023년 1월 1일)	2023년 3월 1일 (2023년 3월 1일)					
취업이민		2021년 6월 22일 (2021년 5월 22일)	2021년 7월 22일 (2021년 6월 22일)					
	4	처리불가 (처리불가)	2021년 2월 1일 (2021년 2월 1일)					
	5	오픈 (오픈)	오픈 (오픈)					

괄호 안은 2025년 5월 우선일자, 자료:국무부

① 위싱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센터빌 엔드유닛 타운홈

\$3.000 차고 1, 방 3, 화장실 3 1/2 헤이마켓 엔드유닛 타운홈 \$3,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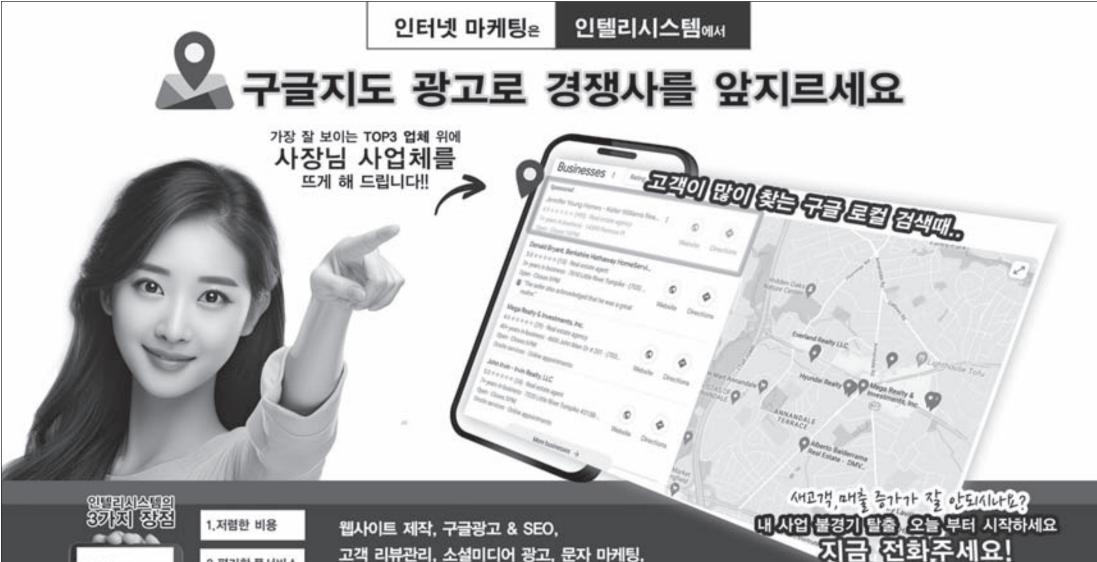
차고 2, 방 4, 화장실 3 1/2



2.편리한 풀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intelisystems;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버지니아가장 안전한 도시 '톱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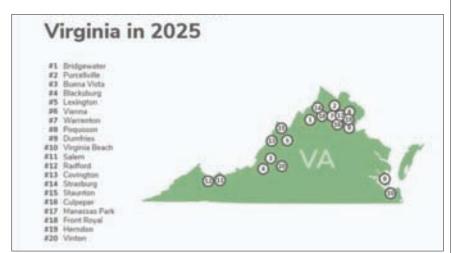
세이프와이즈, 2025년 순위 브리지워터 1위·비엔나 6위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인근 지역인 비 엔나와 덤프리스가 버지니아 안전한 도시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시큐리티 관련 기관인 세이프와이 즈(Safewise.com)는 최근 버지니아 주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0곳을 선정 해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페어팩 스 카운티의 비엔나가 3위, 프린스 윌 리엄 카운티의 덤프리스가 9위에 올랐 다. 1위는 브리지워터가 뽑혔다.

세이프와이즈는 연방수사국(FBI)의 2024년도 범죄율 자료와 자체 조사결 과를 분석 거주민 5000명 이상의 지역 중 안전한 커뮤니티 10곳을 발표했다.

버지니아에서 살기 좋은 대표적인 타운으로 꼽히는 비엔나는 낮은 범죄 율은 물론 전원적인 분위기와 편리한 교통 교육열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6위에 올랐다.



재산범죄도 타 도시에 비해 높은 편 은 아니다. 9위에 오른 덤프리스 역시 낮은 범죄율과 더불어 자연과 더불어 살수 있는 커뮤니티 환경이 우수한 평 가를 받았다.

조사에서 대체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주민은 47%로 전년도 49%보 다 약간 떨어졌다. 또 안전과 보안에 대 해 매일 우려는 느끼는 주민은 46%에 달했다.

안전한 상위 10대 도시는 브리지워 터를 필두로 퍼셀빌, 부에나 비스타, 블 랙스버그, 렉싱턴, 비엔나, 워렌턴, 포 쿼슨, 덤프리스, 버지니아 비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인들이 밀집으로 거주하고 있는 페어팩스 시나 알렉산드리아, 알 링턴, 폴스 처치, 센터빌 등은 모두 10 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김성한 기자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

24일 한인커뮤니티센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 (회장 린다 한)는 오는 24일 저녁6시 알 렉산드리아 소재 코리안커뮤니티센터 강당에서 2025년 2분기 정기회의를 개 최할 예정이다.

2분기 의견 수렴 주제는 '대내외 환 경변화와 통일 대북정책 추진 방향' 으로 각 분과와 평통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민주평통 정책에 반영할 계획에

있다.

이 외에 회의에서는 안건으로 사업보 고와 사업계획보고, 재정보고, 그리고 6,7,8월 행사 안내 등을 다루게 된다.

린다 한 회장은 "동포의 목소리를 담 은 건의 자문을 강화하기 위해 매 분기 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며 평 통위원들의 성원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는 703-677-7161 / 703-629-1288로 하면 된다.

김성한 기자

재미한국학교 워싱턴협의회

2025년 정기총회 6월14일

재미한국학교 워싱턴협의회(회장 정광 미) 2025년 정기 총회가 오는 6월14일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재 코리안커 뮤니티센터 2층 소강당에서 개최될 예 정이다.

이날 정기 총회에서는 '2024-2025 학 과 사업수행 보고.접수', 2025 학년도 사 업계획 논의.인준', '예산.결산 심의 통

과' 등 주요 안건을 다루게 된다.

정광미 회장은 "항상 회원교들의 관 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정기 총회에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 다. 워싱턴협의회는 2025년 가을학기 교사연수회를 오는 8월23일 개최할 계 획을 갖고 있다.

기타 문의는 전화(301-233-9164) 또 는 이메일(wakskorean@gmail.com) 로하면된다. 김성한 기자

코스트코, 외상식 '나중 결제' 서비스 도입

500달러 이상 구매 한정

한인들이 즐겨 찾고 있는 '코스트코' 가 외상처럼 물건을 먼저 구입하고, 대 금 결제는 나중에 하는 특별 서비스를 도입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코스트코는 할부 결제 플랫폼인 '어 펌(Affirm)'과 협력을 체결하고 회원 들에게 보다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선 구입, 후 페이' 시스템 운영에 들어 갔다고 밝혔다.

맞춤형 월별 분할 결제도 가능한 이 서비스는 1회 구매 금액이 500달러에 서 1만7500달러 사이일 경우에 한하 며, 소액 결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어펌의 한 고위 간부는 "코스트코는 대량 구매가 일반적인 구 조여서 상당수 회원들이 만족할 것"이



라며 "당장 현금이 없어도 물건을 구입 할수있는것이특징"이라고말했다.

어펌은 숨겨진 수수료나 이자가 없 는 구조로 인해 가전제품, 실외용 가구 등 고가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 게 많은 도움이 될 전망으로 점쳐지고

쇼핑 방식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 는 '지금 사고 나중 결제' 시스템은 지 속되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가운데

소비자들이 '할부경제'에 의존하는 현 상과도 맞물려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나중 결제 과정에서 맞춤형 월별 분 할 페이 플랜을 선택할 수도 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에서 요식업을 운 영하는 김운영(58) 사장은 "최소 일주 일에 한 번은 코스트코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크레딧카드와 달리 수수료도 없도 이자도 없으니 너무 좋은 것 아니 냐"며 환영을 표했다.



위성턴지역 원로목사회 워싱턴지역 원로목사회(회장 이석해 목사)가 13일 워싱턴예수사랑교회(담 임 이성웅 목사)에서 5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6월 월례회는 10일 서울장로교회에서 열린다.



FDIC

김치와 감자튀김, 이게 한국 음식?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공식 X 계정을 통해 샌프란 시스코자이언츠가 '한국 문화의 밤' 행사를 위한 독점 음식을 공개했다. 이 음식은 감자 튀김, 김치, 스팸 튀김, 파슬리, 소금, 후추 등으로 만들어져 한 국음식에 대한 모독이라는 비판과 함께 가볍게 웃 고즐기자는 코드도숨어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www.toptravelusa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 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재외선거, 악법은 방치 임명장만 남발

정당들 말로만 '소중한 한표' 재외선거법 개정 요구 외면 내일부터 대선 '깜깜이 투표'

한국의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중 인 가운데 주요 정당들이 재외국민 표 심을 잡겠다며 미주 한인 수백 명에게 각종 임명장을 수여했지만, 이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 이 일고 있다.

임명장을 받은 한인들은 까다로운 재외선거 규정 탓에 사실상 입과 손발 이 묶여할수 있는일이 거의 없고, 정 작 임명장을 보낸 정당들은 재외선거 법 개정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LA 지역에서의 재외선거 (20~25일) 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각 후보지지 한인들은 무의미 한 임명장만 받아든 채 선거운동도 못

하고 이번 대선을 맞이하게 됐다.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 의힘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이번 선거를 위해 북미지역 대선 참여 운동본부 등을 출범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LA, 뉴욕 등 11개 지역 본부장과 위원, 고문 등 무려 300명 이상에게 임명장을 발송했다. 문제는 임명장을 받은 이들 이 재외선거운동 지침이 현지 사정과 맞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는점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총괄 미주지역 특보단장 최아숙 씨는 "단체가 주도하 는 모임은 물론 지지 성명도 낼 수 없 고, 언론 지면 광고나 배너 사용도 할 수 없다"면서 "당 법률지원팀에 재외선 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여론을 전달 한상태"라고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도 김

석기 의원을 재외동포위원장으로 임명 하고 재외국민 투표 독려에 나섰지만, 정작 재외국민들은 '깜깜이 선거'를 치 러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 미주부의 장인 이용태 LA 평통 회장은 "재외선 거운동을 제한한 선거법은 정말 말이 안된다"면서 "최소한 한국 선거운동과 비슷하게 지면 광고도 하고, 배너와 플 래카드도 활용해야 투표 참여 독려가 가능한데 이를 막고 있어 선거운동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치권의 행보와 재외국민들 의 현실은 엇박자만 내고 있다. 각 정당 들은 재외선거 참여만 강조할 뿐, 선거 법 개정에는 이렇다 할 입장조차 내지 않고 있다.

본지는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으 로 임명된 김석기 의원에게 이러한 상 황에 대해 두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김

의원은 16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최아숙 민주당 미주지역 특보단장 역시 "당에서는 선거법을 바꿔보겠다 라든지, 현지 여론을 수렴해보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전 했다.

이용태 회장 역시 "당에서는 선거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재외선거 등록 유권자는 25만 8254명이다. 이중 미국 에서는 5만 1885명이 등록 유권자로 나 타났다. 이중 LA는 1만 341명이다. 한 국 대통령 재외선거는 20~25일 LA총 영사관 등 전 세계 182개 재외공관에서 치러진다. LA총영사관 관할 지역 투표 소는 'LA총영사관 2층, OC한인회관, 샌디에이고 한인회관, 애리조나 마리 코파 아시아나마켓'등이다. 김형재기자

팜스프링스서 차량폭발 '테러'

지난 17일 팜스프링스 난임 클리닉 앞 에서 발생한 차량 폭발 사고가 반출 생주의에 사로잡힌 남성의 테러 행위 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방 수사국 (FBI)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간주하 고수사중이며,이 사건으로용의자1 명이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

NBC는 사법당국 고위 관계자 2명 을 인용해, 폭발이 반출생주의 이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폭발한 차량 근처 에서 발견된 용의자 시신의 신원은 가 이 에드워드 바트쿠스(25)로 확인됐 다. 수사당국은 그의 소셜미디어 게시 물과 30분짜리 오디오 녹음을 분석해 그가 반출생주의적 견해를 가졌음을 확인했다. 반출생주의는 인간의 생식 행위가 비윤리적이며, 자녀를 가져서 는 안 된다고 믿는 신념을 뜻한다.

김경준 기자

미주한국일보, 밀린 세금 425만불 내기로

체납액 911만불 중 절반 삭감

미주한국일보(회장 장재민)가 10여 년 동안 밀린 세금 425만 달러를 결국 내 기로 했다.

지난 9일 가주연방법원에 따르면 미 주한국일보는 체납액 911만 달러(2025 년 3월 31일 현재) 중 425만 달러를 국 세청(IRS)에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IRS가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깍아 주기로 합의한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 다. 미주한국일보는 회사 여유자금, 외 부 차입, 주주 대여 또는 신규 출자 등 의 방법으로 납부 자금을 마련할 것으 로 전망된다.

연방검찰은 지난 2023년 12월 미주 한국일보를 상대로 2011년 체납 소득 세 원금과 이자, 수수료 등을 합해 총 796만 달러를 납부하라며 소송을 제기 했으며, 최근까지 1년 6개월 동안 조정 과정을 거친 바 있다.

미주한국일보가 체납했던 세금엔 2011년과 2013년 골드만삭스로부터 제 공받은 부채 탕감 액수에 대한 소득세 원금 660만 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와 벌금, 징벌 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다.

소송이 진행되자 국세청은 미주한 국일보소유 재산에 대한 조세 유치권

(Tax Lien)을 신청해 자산을 동결하고 매각을 금지했다. 소송이 길어져 10년 이 지나자 지난 3월 또다시 유치권을 신 청한 바 있다.

유치권을 신청한 국세청 애리조나 지부관계자는 "유치권 연장은 연방 검 찰의 요청으로 진행됐다"며 "피고 측 이 보유한 자산과 자산의 형태는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장재민 회장은 2015년과 2016 년 개인 소유인 뉴욕 사옥과 LA 사옥 을 매각한 바 있다. 미주한국일보는 한 국의 한국일보와는 지분관계가 없다.

최인성 기자



한국어반 프로그램 변경 반대 시위 한인 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라크레센타 지역 몬테비스타 초 등학교가 한국어 이중언어 집중 교육(이하 DLI) 프로그램 변경 방침을 밝혀 논란이다. 학부모들은 DLI 프로그램에 대한 혼합 학급 운영 계획에 반발하며 지난 16일 라크레센타 지역 투스트라이크 공원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몬테비스타 초등학교 학부모회 제공]

"한인 기업 물류 경쟁력 강화"

워킹맘 연봉 35% 낮아 불리

동일 조건 기혼 남녀 소득 격차 월 평균 1600불 …연 2만불 달해

'워킹맘'의 경력과 수입이 결혼과 출산 을 기점으로 크게 꺾이고 있다는 분석 이 나왔다.

최근 금융정보업체 뱅크레이트가 센서스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녀 가 있는 풀타임 근무 여성의 평균 연봉 은 같은 조건의 남성보다 약 3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격차가 유지될 경 우, 여성은 향후 30년간 약 59만 달러의 수입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전문가들

은 이를 '엄마의 불이익(Motherhood Penalty)'이라고 부르며 대책이 시급하 다고 전했다.

워킹맘의 연봉은 평균 5만6680달러 지만, 같은 조건의 기혼 남성은 약 7만 6388달러로 월 1600달러, 연 1만9/00달 러의 격차가 벌어진다. 반면 자녀가 있 는 남성은 오히려 자녀가 없는 남성보다 평균 연봉이 높아지는 '아빠의 보너스' 현상도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기혼 남 성의 평균 연봉은 6만1308달러로 '워킹 대드'의 평균 연봉보다 25%나 낮았다.

자녀를 둔 남성은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사회적 인식 아래 오히려

임금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뱅크레이트는 여성의 학력과 노동시 장 참여가 증가했음에도 출산 이후 수 입과 승진 기회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

조는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선문가들은 워킹밤이 물이익을 받 는 근본 원인을 여성에게 집중된 가사 노동과 육아 책임에서 찾는다. 럿거스 대 여성노동센터 야라 로저스 교수는 "많은 여성이 자녀 출산 이후 유연성을 찾아 비정규직, 파트타임, 혹은 저임금 직종으로 이동한다"며 "가정 내 불균 형이 결국 여성의 경력 손실로 이어지 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원희 기자

인천항만공사 설명회 성황

옥타LA·LA항과 업무협약 인천항만공사(IPA)가 남가주 한인 경 제계와의 물류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

지난 15일 LA 한인타운 옥스포드 팔 레스 호텔에서 열린 인천항 물류 설명 회 및 업무협약식에는 리퍼(냉동·냉장) 화물 화주, 포워더(운송 대행업체) 등 한인 물류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인 천항의 물류 경쟁력에 관심을 보였다.

IPA는 이날 리퍼 전용 인프라와 자 동화 시스템, 배후 물류단지 등 인천항 만의 강점을 집중 소개했다.

이어 물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세계한인무역협회 LA지회(O) 하 옥타LA)와 IPA는 물류 정보 제공. 공동 마케팅, 네트워크 협력 등 실질적 인 지원 체계들 구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인 기업들의 물류 경쟁 력 향상과 인천항 이용 확대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6박 8일 일 정으로 항만 마케팅 활동을 펼친 IPA 는 지난 14일 LA항만청과 자매항 협력 MOU도 체결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식화했다. 박낙희 기자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림.

>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중국·야당·트럼프 삼각파도 버틴 라이칭더 1년

불만 53% 만족 31%

20일 라이칭더(賴淸德·66) 대만 16 대 총통이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반중 (反中)·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 당적 의 라이 총통은 18일 페이스북에 "매 일 모두 조심하고 삼가했으며(兢兢業 業·긍긍업업) 게으름은 없었다"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지난 1년을 자체 평가했다.

라이 총통이 집권한 지난 1년 동안 대만은 삼각 파도에 시달렸다. 대외적 으로 중국의 압박, 내부적으로는 여소 야대 야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다. 올 해 1월부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 제와 안보 불확실성까지 덮쳤다.

라이 총통은 지난해 1월 3파전으로 치러진 대선에서 1996년 대만 총통 직 선제 도입 이후 집권당의 3연임을 막던 '8년의 저주'를 처음으로 깨며 화려하 게 집권했다. 하지만 40.05% 득표율로 33.49%를 득표한 허우유이(侯友宜·68) 국민당 후보와 26.46%의 커원저(柯文 哲·66) 민중당 후보를 물리쳤지만, 여소 야대 의회는 험난한 임기를 예고했다.

中, 봉쇄 훈련에 해외적대세력 맞불

중국은 지난 1년 라이 총통을 강하게 압박했다. "실용적인 대만 독립 일 꾼"을 자처해왔던 라이 총통은 지난해 5월 20일 취임사에서 "중화민국(대만) 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라며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게 현상을 유지할 것"을 선포했다.



20일 라이칭더(앞줄 가운데) 대만 총통이 중국의 압박, 야권의 견제, 트럼프발 불확실성을 거치며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지난 3월 21일 라이 총통이 쑹산 공군기지에서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중국은 취임사가 위험한 현상변경 시도라며 취임 나흘 만에 대만을 봉쇄 하는 '연합 날카로운 칼날(利劍·리젠)-2024A' 실전훈련을 단행했다.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 실시한 훈련과 달리 예고 없 는 기습 훈련으로 위협 강도를 높였다. 아나콘다 작전으로 불리는 중국의 대 만 훈련은 이후 지난해 10월과 올해 4 월 각각 '연합 리젠-2024B'와 '해협 천 둥과 벼락(雷霆·레이팅)-2025A' 명칭 으로 반복했다.

라이 총통은 굴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청나라 가 서명한 아이훈 조약으로 넘긴 땅을 돌려달라고 전쟁으로 취약한 러시아에 요청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라며 "영토상의 이유가 아닌 대만을 침공하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도발했다.

지난 3월에는 국가안보고위급회의 (확대 NSC)를 열고 "중국은 대만의 반 (反)침투법이 정의하는 '해외 적대세력'이 됐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군사재판제도 복구, 통일전선 활동을 한중국인의 대만 방문 금지 등 17가지 대응 조치(라이 17조)를 시행하며 '중국간첩' 색출에 들어갔다.

野대표 구속, 주민소환제 여소야대 돌파

라이 총통의 비타협적인 강공 드라이보는 여소야대의 내부 정치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 민진당은 입법원 113석 중 51석을 차지해 52석의 국민당에 밀렸고, 캐스팅보트를 차지한 8석의 민중당에 주도권을 넘긴 채 임기를 시작했다.

야당은 지난해 5월 이른바 의회개혁 법(일명 총통견제법)을 통과시켜 의회 인 입법원과 입법위원의 권한을 확대 하고 총통과 행정부의 견제 기능을 확 대했다. 라이 총통은 야당의 예산안 삭 5,12 문화보 항국에 시작용 개인한다면 항공개 환자 역 도표 등 전 '정인 때문

유명 송전 80주년 기념 타리터 전설 "참매자를 검사해 2차대한 함에났다"

감 등 공세에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등 외곽 세력을 동원해 맞불을 놓으며 대 응했다.

민진당은 지난 2월부터 대만 헌법 17 조의 파면권 규정과 133조의 "선출 공 직자는 법률에 따라 해당 선거구에서 소환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해 '대 파면(주민소환)' 운동에 돌입했다. 주 로 중국과 연루된 야당 의원을 대상으 로 지금까지 59건의 의 파면 운동이 진 행 중이다.

야당 정치인에 대한 처벌도 이뤄졌다. 지난해 9월 초제2 야당 민중당의 커원저 주석이 타이베이 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 비리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대만 MZ 세대의 지지를 기반으로 오는 2028년 대권을 노리던 커원저는 구속이후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트럼프 "통일과 평화" 돌발 발언 파장

라이 총통에게 덮친 세 번째 파도는 태평양 건너 트럼프 당선과 함께 몰려 왔다.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페루 리마에서 회담을 갖고 "'라이칭더'와 민진당 당 국의 '대만독립' 본성을 인식해야"한 다면서 당시 트럼프 당선인을 겨냥해 평화통일 지지를 압박했다.

공개적으로 대만 방어를 약속했던 바이든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32% 의 상호관세를 대만에 부과하며 경제 적압박을 가했다.

취임 전 국내총생산(GDP)의 2.6% 수준인 대만 국방비를 10%까지 올릴 것을 요구하는 트럼프에 라이 총통은 '탈중입북(去中入北)'으로 타협을 시도 했다.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 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통칭) 중시 전략에 맞서 북반구의 민주 주의 국가와 연대를 강화하는 대외 정 책을 말한다.

지난 1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기자회견에서는 "민주주의 진영을 연 결하는 글로벌 반도체의 비(非) 홍색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주장했다.

라이 총통의 '구애'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일" 발언으로 빛이 바래는 모양 새다. 지난 12일 미·중 제네바 합의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시장을 개방할 의향이 있다면 '통일과 평화(Unification and peace)'에 도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전립선암' 바이든 "응원 감사"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19일 "사랑과 지지로 우리를 응원해줘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부 인 질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암 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 중 많은 사람처럼, 질과 나는 어려울 때 가장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암 진단 이후 직접 공개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바이든 전 대통령 측은 성명을

통해 그가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바이든 측은 "지난주 바이든 전 대통령은 배뇨 증상이 악화한 후 전 립선 결절이 새로 발견돼 진료를 받았 다"며지난 16일 '글리슨 점수'(Gleason score) 9점(등급 그룹 5)으로 특정되는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으며 암세포가



뼈로전이된상태"라고설명했다.

이어 "이는 좀 더 공격적(aggressive) 인 형태임을 나타내지만, 해당 암이 호 르몬에 민감한 것으로 보여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며 "(바이든 전) 대통 령과 그 가족들은 주치의와 함께 치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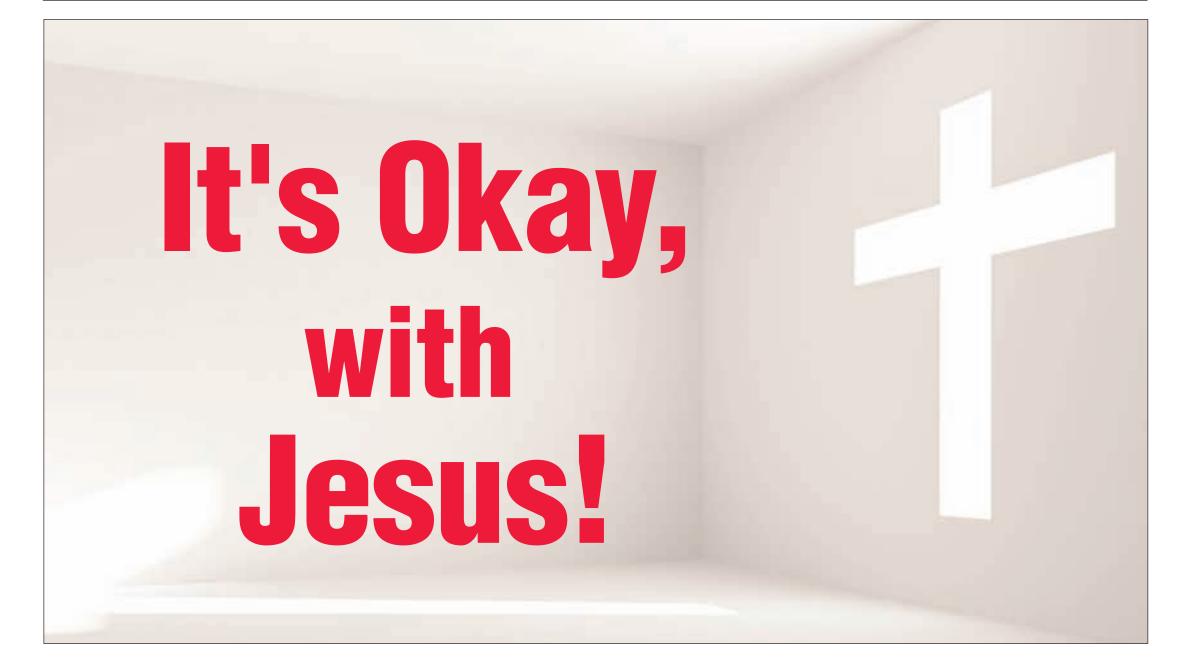
전립선암의 악성도는 통상 글리슨 점수로 나타내는데 점수가 2~6점이면 예후가 좋은 '저위험군', 글리슨 점수가 7~10점이고 전립선 특이항원(PSA) 혈 중 수치가 20 이상이면 예후가 나쁜 '고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현예술기자











미국/국제

브렉시트 5년 만에 … 영국·EU '관계 재설정' 합의

정상회담서안보·경협강화하기로 우크라전·관세에 협력 필요성 커져 'EU 재무장' 영국 방산 수혜 예상 어업협정 연장, 수출 검역도 완화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브 렉시트 5년여 만에 EU와 관계 재설정 을위한 합의에 도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역내 공동 안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양측이 협력을 강화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양측 협상팀은 19일(현지시간) 새벽 까지 협상을 벌여 합의에 도달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안토니 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오전 정상회담을 한 뒤 오후에 회 담결과를 발표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 날"이제 미래를 내다볼 때"라면서 "낡 은논쟁과 정치적 싸움에서 벗어나 영 국국민에게 가장 이로운 상식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리가 새 로운장을 열고 있기에 엄청난 날"이라 며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는 시기라 중요하다"고말했다.

우선 양측은 방위·안보 파트너십을 통해 정보 공유, 해상・우주 안보 등에 서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EU의 '재무 장계획'에 영국이 동참하는 방안을 모 색할 방침이다.

재무장 계획에 따라 1500억 유로(약 240조원) 규모는 유럽산 무기 구매에 쓰일 전망인데, 영국 방산 기업들이 직 접적 혜택을 볼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전통 적 동맹국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상황 에서양측 모두 협력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경제·무역 분야에서 양측은 내년 만 료되는 어업 협정을 2038년까지 연장 해상호 조업권을 12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영국은 EU 어민의 영국 수 역내 조업권을 장기간 연장하는 것을 꺼려 4년 연장을 원했지만, 농축산물 검역완화 등을 위해 양보했다고 외신 들이전했다. BBC는 "이제 영국이 EU 에 수출하는 식음료 검역 절차가 완화 돼 영국산 소시지 등이 EU에서 판매되 기 쉬워질 것이다"고 전했다.

양측은 30세 이하 청년의 이주와 근 로가 쉬워지도록 상호 합의된 조건하 에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위해 공동 노 력하기로 했다. 영국인이 EU 국경에서 전자 자동 입국 심사대(e-gate)도 이용 할수 있게 된다. 반려동물 여권이 도입 돼EU 국가를 여행하는 영국인들은 동 물건강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 조너선 레이놀즈 산업통상장관은 이날 "(새 합의가) 영국에 실질적인 큰 혜택 을줄것이다"고말했다.

BBC는 "영국 정부는 이번 합의로 2040년까지 영국 국내총생산(GDP)이 90억 파운드(약 16조 7428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이는 GDP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경제에 도 움은 되나 정부 주장만큼 엄청난 정도 는아니다"고 짚었다.

합의가 도출되자 제1야당인 중도보 수 보수당과 우익 포퓰리즘 성향 영국 개혁당 등 야권은 "EU에 항복하는 것" 이라며 반발했다.

EU는 여전히 영국의 최대 교역 상대 지만,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EU 수출 은21% 감소했다. 이에 영국에선 브렉 시트를 후회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1월 유고브 여론조사에 따르면응답자의 62%가 브렉시트가 실 패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서유진 기자



[연합뉴스]

가자에 식량 풀어주는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끌어낼까

지상군 투입 동시에 식량원조 허용 최소151명이 사망했다"고전했다. '하마스 장악력 약화시키려는 의도"

이스라엘이 18일 가자지구전역에 지상 군을 투입하는 동시에 가자지구 봉쇄를 약 10주 만에 풀고 식량 원조 등을 허용 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항복 또는 휴전 동의를 압박하기 위한 '강온 양면' 전략이란 풀이가 나온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구 점령 계획인 '기드온의 전차' 작전을 개시하 며대전차미사일 발사대, 군사시설 등 160여 개 목표물을 공습했다. 알자지라 방송은 "이스라엘방위군(IDF)이 보병 과기갑사단 등 6만여 병력을 동원했으 며,이번 작전으로 이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총리실은 지상 작전 재개 를발표한 뒤 몇 시간 후 "가자지구에 기 아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수준의 식량이 반입되는 것 을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미국·이스라엘의 지원을 받는 가자인 도주의재단(GHF)이이달 말부터 가자 지구에 배급을 지원할예정"이라고 했

이스라엘은 지난 3월 2일부터 하마 스가 '휴전 1단계 연장'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자지구에 식량·의 약품 등물자 공급을 차단해 왔다. 이번 조치를 두고는 "가자 주민의 인권을우

려하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누그러뜨리 면서 하마스의 장악력을 약화하려는 의도"란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스라엘 총리실은 "(식량 반 입 허용은)하마스를 격파하기 위한 작 전적 필요에 의한 방침 변경"이라며 "군부가 권고한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은 이 같은 강온 양면책을 통해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을 유리하 게이끌겠다는 판단이다. 전날 카타르 도하에선 양측이 휴전 협상을 재개했 지만여전히 답보상태다.

이스라엘은 인질전원 석방, 하마스 의 가자지구 추방 등하마스 측이 기존 에 거부해온 내용을종전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한다. 이승호 기자

미국 "협상 늦으면 관세율 통보" 압박…한국 대표단 오늘 출국

한·미 기술협상 대선 전 마지막 협의

미국이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대 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7 월 8일로 정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까지 협상을 마치지 못하면 기존에 정한 관 세를 그대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열린 행사에서 "향후 2~3주 이내에 (각국 에) 스콧(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하

워드(러트닉 상무부 장관)가 미국에 으로 해석된다. 서사업을 하기 위해 그들이 내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

이에 대해 베센트 장관은 18일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들이 선의 (good faith)로 협상하지 않으면 관세 율이 적힌 서한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 라며 "난모두가와서선의로협상할것 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

관세율이 적힌 서한은 4월 2일 발표 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의미하는 것

이에 한국은 이번 주 국장급 실무 협 의를 위해 정부 대표단을 파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내일(20 일) 출국해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실무진과 '2차 기술 협상'을 진행한다" 고설명했다. 다음 달 3일 대선 전 미국 과 마지막 대면 협의가 될 전망이다.

다만 한국은 6월 대선 이후 차기 정 부가 들어서게 되면 협상 라인이 바뀌 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7월 8일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종=김원 기자

10분간 조종사 없었다

205명이 탑승한 독일 여객기가 조종사 없이 10분을 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 18일 뉴욕포스트가 보도했다.

스페인 항공 조사관이 발표한 보고 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승객 199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독일 프랑크푸르 트에서 스페인 세비야로 날던 루프트 입력해 겨우 조종실로 들어갔다. 실신 한자의 에어버스 A321기는 기장이 화 장실을 간 사이 부기장이 조종실에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났다.

아찔한 상황은 비행이 30분가량 남 았을 시점에 발생했다. 기장(43)이 화

장실을 이용하는 동안 부기장(38)이 의 식을 잃었고, 이에 약 10분간 조종사 없 는 비행이 이뤄졌다.

약 8분 후 돌아온 기장이 조종실로 연결된 인터컴을 통해 부기장을 여러 실은 테러방지를 위해 밖에서 강제로 열 수 없다. 결국 기장은 비상 코드를 했던 부기장은 기장이 들어왔을 때쯤 정신을 차렸다. 기장은 재빨리 조종대 를 잡았고, 객실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 청해 탑승 중인 의사로부터 부기장이 응급처치를 받도록 했다.

Total Business Solution

스마트보험에서는 비즈니스 보험과 직장 건강보험관련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업종별 맞춤 비즈니스 보험

(GL, WC, E&O, Bond 등)

베네핏 컨설팅을 통한 최적의 직장 건강보험 전담 컨설턴트 배정 및 운영 지원

미주 진출 한국 지상사 전문 상담

당사 전용 글로벌 직장 건강보험

(United Healthcare, Aetna)

* 한국내 유명 병원에서도 사용가능 (삼성병원, 현대 아산병원 등)



Smart Choice for Smart People

smartinfo@solomonus.com 7535 Little River Turnpike,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703-639-0882

전면광고 △ 7



애난데일 703-354-1515

2층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일:오전 11시 - 오후 5시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면역력 향상을 원하는 당신의 건강지킴이 @LG생활건강





어떻게 만들어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고급 로얄 앰플 1병당 사포닌 18mg 함유

홍삼 로얄 본액 한팩 사포닌 12mg 함유





어머님들의 필수 건강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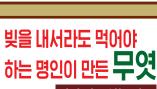
리튠 진한 \$36 1+1 레드 석류 콜라겐













<mark>천식</mark>에 최고













여에스더 필름글루타치온



간 해독 꿀광피부 피로개선



영신 생 로얄제리 원액은 USDA(미농림부)로부터 100%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100% 유기농





항암, 면역성 강화, 갱년기 증상 예방 헤퍼리프트

관절치료 통증완화에 최고!!

+ 프로폴리스 한병 공짜







100% 홍삼즙 60포/30포

대통령 표창 수상! 기력회복 / 면역력암환자 /만성피로

CJ그룹과 서울대 연구진이 개발한







민성기침,기래 cmori C. MORI

만성기침과 가래 만성기관지열, 기관지천4 기관지 노화로 인한 가래와 기침 아침에 가래가 심하다. 만성기관지열과 천식으로





대한민국 인증 유일한 명인 도해 용융 지죽염





70가지 이상의 미네랄을 함유한 강력한 항산화

각종 음식의 풍미 강화, 잇몸 건강



장수 넘버원 홍화씨 뼈, 관절 건강에 최고!!

골다공증, 염증, 관절염 감소



혈당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

ਂ 식후 혈당 수치가 높으신 분 ਂ 혈당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분들 ✅ 생활습관 및 식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식후에 활동량, 운동량이 부족하신 분 ✅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을 얻고자 하시는 분

천연 발효 식초

발효 장인이 만든 명품 식초 시큼하지 않은 맛 좋은 <mark>천연 식초</mark>

체중 감량



초유 단백질

노년기 빠지는 근육 생성, 회복 우유를 못 드시는 분도 편안하게 당뇨, 고혈압.



간 회복과 피부 미백까지 피로개선과 피부미용을 동시에



먹는 발모제 비오틴

고함량 비오틴으로 풍성하게~

맥주효모로 빽빽하게~ Biotin 🛂 엘라스틴으로 10000 == 찰랑하게~

석류엑기스 / 나토키나제 / 리포포 베타글루칸 / 코소볼 EX / 흑마늘환 제도아리 / 제첩엑기스 / L칼슘 노니매실 / 엘라스틴뷰티 콜라겐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카멕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멕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문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5년 현재 30년 이상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SPEC-AL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703.352-8949 703.225.9151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UTION ----- CAUTION ----- CAUTION ----- CAUTION ----- CAUTION ------ CAUTION ------ C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최신형 X-Ray 완비/교정 및 물리치료/의료보험

과 목

- · Whiplash 전문치료
- · 목이 뻣뻣한 증상
-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 허리 디스크
- · 허리 통증
-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ra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마정치이야기 마소" 마음 뒤숭숭한 부산

대선 D-14 부산·대구 민심 르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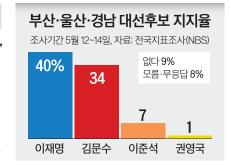
"이재명 현실적, 일머리는 확실해" "우리라도 김문수 챙겨야" 엇갈려 청년 "차라리 이준석이 나은 듯"

"우리가 한쪽만 주구장창 밀어준다고 예? 마 투표장 가기 싫다는 사람이 태 반입니더."

18일 오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서 열린 모래축제에서 만난 양병진(45) 씨는 6·3 대선 전망을 묻자 손사래를 치 며 이렇게 대답했다. 딸과 함께 나들이 를나온 양씨는 대선 얘기에 "이렇게 좋 은 날 정치 얘기를 만다고 하느냐"며 "국민의힘 꼬라지는 대체와 그라노"라 고 한숨을 쉬었다.

'보수의 아성' 영남이 심상치 않다. 3년 전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57.7%를 득표하고,지난해 4·10 총선에 서 국민의힘이 전체 40석 중 34석을 석 권했던 부산·울산·경남(PK)에선 최근 '디비졌다'는 말이 나온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사의 전국지 표조사(전화면접방식·12~14일)에서 PK 지지도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40%,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4%, 이준석 개 혁신당 후보 7%'였다. 한국갤럽 전화면 접조사(13~15일)에서도 '이재명 41%, 김문수39%, 이준석6%'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 대선 득표율이 73.9%에 달하고, 지역구 의석 25석을 국민의힘 이 싹쓸이한 대구·경북 민심도 예전 같 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화면접조 사에선 '김문수 54%, 이재명 29%'(전 국지표조사, 12~14일), '김문수 48%, 이재명 34%'(한국갤럽, 13~15일)로 여 전히보수 우위였지만, 리얼미터 무선 자동응답 조사(14~16일)에선 '김문 수 44.9%,이재명 43.5%'로 박빙이었다 (※기사에나온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 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18~19일 만난 부산 시민 상당수 는"12·3 비상계엄 이후로 마음이 갈팡 질팡한다"는 속내를 밝혔다. 부산시 동래구에서 주류 수출업을 하는 김인 석(53)씨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탈당 갖고 면피가 되겠나, 완전 절연해야 한 다"며 "저번에도 그렇게 (국민의힘을) 밀어줬는데 이게 무슨 창피입니꺼"라 고 했다. 동래구는 윤 전 대통령이 지 난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두 차례 방문 한곳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해선 애증 이 교차했다. 남구에 거주하는 60대 택 시기사 황모씨는 "해수부부터 옮긴다 는 이재맹이가 현실적인 것 같다. 지자 체장을 역임해 일머리는 학실하데이" 라며 "극우 보수를 표방하는 김문수는 도저히 찍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에 망미중앙시장에서 반찬가게를 하는 김 옥희(57)씨는 "아무리 그래도 범죄를 질렀던 이재맹이한텐 손이 안간다"며 "골프 치고 사우나까지 간 사람을 모른 다고 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람 을 어떻게 뽑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성토도 거셌다. 부 산진구에서 인테리어업을 하는 김병수 (49)씨는 "아직도 제 살 뜯어먹기만 하 고 있으니, 3년 준비한 이재명을 어떻게 이기느냐"며 "각자 따로 놀면서 단합도 안 되니, 대법원을 향한 민주당 겁박도 못 막아내는 것"이라고 했다. 연수동에 서 숙박업을 하는 박성준(52)씨도 "한 덕수와 한동훈은 선거 안 돕고 어디에 서 뭘하고 있느냐"며 역정을 냈다.

흔들리는 영남 바닥 민심을 정치권 도 간파한 것일까. 예년 선거와 달리 각 캠프의 화력은 초반부터 영남권에 집 중됐다.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부터 대구·경북(13일)을 거쳐 부산·

경남(14일)을 찾았고, 김문수 후보는 12일부터 대구에서 1박2일 유세를 벌 인 뒤, 13~14일은 부산·경남 일대를 훑 었다. 이준석 후보는 대구(13일)와 부 산(14일)에 각각 하루씩 머물며 청년층

을 공략했다.

세 후보가 첫 지역 유세를 벌인 대구 민심도 술렁거렸다. 칠성시장에서 생 선가게를 운영하는 김병철(54)씨는 "이재명이는 본인 잘못은 아무것도 아 닌 척 선동하면서, 이상한 경제 관념을 심으려 카지 않느냐"며 "이준석이 말처 럼 사람들이 어려울 때 다가오는 사이 비 종교 같아 찍을 수 없제"라고 말했 다. 반면에 취업 준비생 이모(33·대구시 북구)씨는 "바보 같은 윤석열을 밀어준 대구 사람들이 이번엔 단디 고생해 봐 야정신차린다"고 밝혔다.

김상욱 의원이나 김용남 전 새누리 당의원 등 보수 정당 출신 인사들이 이 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엔 반감이 강했다. 칠성시장에 장을 보러 온 50대 이정미씨는 "박쥐 아이가"라면서 "선 거전에 뻐뜩하면 손드는 야비한 배신 자로밖에 안 보인다. 좀 있으면 홍(준표 전)시장도 철새처럼 민주당으로 옮기 게 생겼다"고 말했다.

부산시 해운대구에서등산용품 판매 점을 운영하는 40대 김동은씨도 "간신 들이 보수 진영을 다 배신하는 데 우리 라도 국힘을 안 챙기면 우짜겠노"라고 말했다.

청년층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해 호감을 보이면서,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대해 날을 세 웠다. 부산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우 영욱(28)씨는 "이 후보가 자판기 커피 얘기를 하는 줄 알았다"며 "이재명의 '호텔 경제학' 영상이 유튜브에 뜨면 마음이 가다가도 사라진다. 차라리 이 준석이 나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만난 30대 남성 은 "이준석이 마음에 들지만 세력이 너 무 없어 사(死)표가 되는지라 고민 중" 이라고밝혔다.

'경제 살리기'는 영남에서도 최대 이 슈였다. 부산시 수영구 팔도시장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60대 한미현씨는 "윤 석열 정부 3년 동안 경기가 더 안 좋아 졌다"며 "부산 엑스포 때문에 돈 날린 것 말고기억남는게 없다"고 했다.

부산 해운대 시장에서 정육점을 운 영하는 40대김모씨도 "산업은행 이전 이랑 가덕도 신공항은 대체 언제 완성 하느냐"며 "할 수있는 게 천지 삐까리 인데 다들 일을 안하는 것 같다"고 했 다. 대구에서 만난 70대 양승철씨는 "요즘 정치 행태를 보면 마음을 확 정 해지진 않는다"면서도 "미래 세대를 위 하고 정책을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 겠다"고말했다.

부산·대구=김정재 기자

문제됐던 '셰셰·호텔경제론' 다시 꺼낸 이재명···논란 털기 승부수? 자충수?

고도의 전략인가, 자충수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과거 자신 이 야기했던 문제의 발언을 스스로 재 소환하고 있다. 대표적인게 친중 굴욕 외교의 상징처럼 인식돼 온 '셰셰' 발언 이다.

이를 두고 지지율 우위 속에 논란을 정면돌파하려는 이 후보의 승부수라 는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부자 몸조 심' 전략과 상충되는 엇박자라는 지적 이나오고있다.

최근 도마에 오른 건 '호텔 경제 순환 론'이다.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 현장 에서 이 후보는 "일부 경제학자들이 반 론하던데, 과거에 쉽게 경제를 설명하 기위해 들었던 예"라면서 이를 다시 언 급했다. '한 여행객이 마을 호텔에 10만 원의 예약금을 지불→호텔 주인은 이 주인은 치킨 구매→치킨집 주인은 문방 구에서 물품 구매→ 문방구 주인은 호

텔에채무 상환→이후 여행객이 호텔 예약을취소하고 10만원을 환불받은 뒤 떠나는상황'을 가정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에 들어온 돈은 결 국 없는데, 거래들이 발생했다. 이게 경 제다"라고 했다. 호텔 경제 순환론은 이 후보가 2017년 대선 때 자신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지급을 설명하기 위해 꺼냈던 얘기다. 하지만 당시 "무한동력 창조경제"란 비아냥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후보는 3년 전 방산주 보유 논란 도꺼냈다. 14일 경남 창원 유세 현장에 서이 후보는 방산수 거래 사실에 대해 막해몇 달 고민하다 주식을 샀는데 마 침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됐다"면서 "국 회의원도 아닐 때 샀는데 무슨 내부 정 돈으로 가구점 외상값 지불→가구점 보를 활용했다는 것이냐. 15% 손해보 냐. 일본 대사에게도 '감사하므니다'라 고팔았다"고해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2022년 21대 국회 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용산역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발언하고 있다.

방위원으로 활농할당시 2억원대 방산 "지난 대선 때 낙선하고 먹고살 길이 막 주 보유 사실이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 을 샀다. 이 후보의 "중국에도, 대만에 도 '셰셰' 하면 된다"는발언도 13일 경 북 포항 유세에서 "제가틀린 말을 했 고했다"며꺼냈다.

한꺼번에 털어내는 회계 기법인 '빅 배 스(Big Bath, 화끈한 씻어내기)'와 닮 은 그렇게 무서운곡학아세의 세상"이 아 있단 말이 나온다. 애매한 부실을 과 감하게 공개해 오히려 책임 소재를 명 확히 하고 향후 실적 개선을 부각하는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이재명은 의도다.

민주당 선대위 소속 3선 의원은"이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이전의 부실을 후보가 안정적 여론 기반을 구축한상

황이지 않나"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불 거진 논란에 대해 선제적으로 시비를 가리면서, 이번 기회에 다 털고 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이런 이 후보의 대응 방식이 오히려 논란을 추가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18일 대선후보 첫 TV토론회에서 이 후보의 '호텔 경제' 와 '셰셰' 발언은 집중 타깃이 됐다. 이 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페이스북에 "요 즘 이 후보 발언의 일관된 공통점은 과 거에 문제 됐던사건이나 발언을 다시 꺼내서, 덤벼볼 테면 덤벼보라는 듯 우 겨대는 것"이라며"이재명이 만들세상 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문재인 노쇼주도성장으로 경제를 망치겠다" 고 했다. 이 후보가 가정한 사례에서 '여행객이 호텔에 예약금을 냈다가 환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 ♥ 약 챙겨드리기
-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 운동 도와드리기
- ♥ 간단한 집안 일 도와드리기
- ♥ 식사 도와드리기
-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 말 동무 해드리기
-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 상태 확인 등등

롱텀케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 드립니다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컬 빌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서울 홍대 유세에서 방탄유리가 설치된 차량에 올라 연설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문수) "아이 낳으면 1억 검토"

(이재명) "어르신 덕에 한국 성장"

홍대서 "부동산 공급 늘리는 방식으로 관리" 방탄유리 속 유세…허은아, 이재명 지지 선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2일 '경제 강 국'과 '내란 극복'을 두 축으로 하는 10대 대선 공 약을 발표했다.

첫 번째로 내건 것은 '경제 강국 만들기'였다. AI(인공지능) 산업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성장 기 반을 구축하겠다 게 핵심 구상이다. 구체적으론 AI 관련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 하고 100조원 규모의 신산업 분야 민간 투자금도 국민펀드 형태로 유치하겠다고 했다.

2호 공약은 '내란 극복을 통한 민주주의 강국' 이다. 국회의 계엄해제권 강화, 3군 참모총장에 대 한 인사청문회 도입, 군 정보기관에 대한 문민 통 제강화등이그내용이다.

김성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정책본부장은 "내란 세력을 어떻게 척결할지가 이번 대선의 가 장큰숙제"라고말했다.

검찰개혁도 핵심 과제다. '경찰 수사-검찰 기 소' 완전 분리를 완성하고 기소권을 남용한 검사 를 탄핵을 거치지 않고 파면할 수 있게 하는 '검사 파면제'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대법관 정원 확대도 10대 공약에 들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사법 내란'으로 규정한 뒤 민주당이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사랑 상품권(지역 화폐)

발행 규모 확대는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이라 는 맥락에서 다뤄졌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 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재 추진도 공약에 담았다. 또 근로기준법에 '포괄임 금제 금지'를 명문화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법 2·3조 개정)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재계 가 반대하는 정책이다.

임기 내 국회 세종 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 실을 건립한다는 내용은 균형 발전 정책으로 반 영됐다. '개헌'은 10대 공약에서 빠졌다. 진성준 공동 정책본부장은 "중요한 정책이라 별도로 발 표할시간을잡으려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청계광장서 "청년 돕는 게 국가 기본책무" 결혼·출산따라 최장 9년 주거비 지원책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청년층 표심 잡 기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노인회에 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에게 인 사를 건네자마자 출산장려금 이야기를 꺼냈다. 김 후보는 "존경하는 이중근 회장님께서 특별한 애국심을 갖고 계신다"며 "특별히 감명받았던 것 은 아기를 하나 낳으면 부영이 무조건 1억씩 준다 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근 회장은 부영그룹에

서 지난해부터 국내 최초로 아이 1명당 출산장려 금 1억원을 지급해 오고 있다. 올해까지 94명의 부 영그룹 직원이 98억원의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았 다. 김 후보는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바로 제가 하고 싶었던 건데' 그랬다"며 "1년에 25조원이면 할 것 같다는데, 아기를 낳으면 1억씩 무조건 주는 정책을 정책위의장에게 한번 검토를 해보자 했 다. 젊은 사람의 귀가 번쩍 떠지도록 하는 정책을 해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서울 청계광장에서 성년의 날 (19일)을 축하하면서 청년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청년 선거사무원과 함께 연단에 오른 김 후보는 "가장 큰 문제는 청년이 절망하는 것이다. '쉬었음 청년(통계청 조사에서 '그냥 쉰다'고 응답한 경우 로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청년)'이 50만 명인데,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하면서 '쉬었음 청년' 한 분 한 분에게 전화해 어떻게 쉬게 됐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물어 일자리를 안내했다" 며 "청년을 돕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고, 제가 정치를 하려는 이유"라 고 했다. 김 후보는 또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출산 시 3년, 둘째 아이 출산 시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 를 지원하는 '3·3·3주거 지원'과 공공예식장 확대 등을 공약에 담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 보대선 비용 마련을 위한 '김문수 문수대통펀드' 가 공모 19분 만에 목표액인 250억원을 모집했다 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김문수 만난 이준석 "단일화 자체에 관심 없다"

김 "당잘못에고생" …이 "입장 안 달라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9일 이준석 개혁신 당 후보를 향해 "우리 당이 그동안 잘못해서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계신다"고 손을 내밀었다. 그러 나 이 후보는 "제 정치 입장이 달라질 것은 없다" 고선을 그었다.

두 후보는 이날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서 울시청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 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전날(18일) 후보자 초청 TV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협 공하는 모습을 보인 데 이어 이틀 연속 만나게 된

셈이다. 축사 중 김 후보는 "지금은 우리 당이 잘 못해서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고생 끝 에 대성공을 터뜨리고 계신다"며 "저를 지지하는 많은 분이 '어제(토론회)의 MVP는 이준석이다, 김문수가 아니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토론회 전 사전 비공개 차담에서도 김 후보는 "어 제의 MVP는 이준석"이라고 말해 참석자들 사이 에 웃음이 터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 후보는 기자 들과 만나 "김 후보의 진정성이나 보수 진영을 규 합해 선거를 치러보려는 선의에 대해 의심 안 한 다"면서도 "단일화 논의 자체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충돌 피한 이재명, 한방 부족 김문수, 허점 노린 이준석

전문가 4인이 본 대선 TV토론

"이재명, 큰 실점 없었지만 회피 인상" "김문수, 순발력 부족 결정타 못 날려" "이준석, 이재명 정책 파고들며 공세"

6·3 대선 막판 표심을 가를 세 번의 대선TV토론 이재명 후보는 '의도적인 빗장 수비'란 평가를 받 중 첫 번째 토론이 지난 18일 진행됐다. 이재명 더 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각자의 스타일대로 토

론에 나섰고, 온라인에선 토론 어록이 회자될 정 점은 없었지만, 회피하는 인상도 줬다"고 분석했 도로 화제를 모았다. 중앙일보는박성민 정치컨설 팅 민 대표,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 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조에스더 엘컴퍼니 대 표 등전문가 4명에게 토론 성적표를 물었다.

① 공격 대수비

았다. 박성민 대표는 "이 후보는 토론 내내 골문 앞을 지키는 전략이었다"며 "주도권 토론 때도 이 준석 후보에게 질문하는 걸 피했다. 결국 대량실

이준석 후보 전략은 정반대였다. 수비대신 공격 에 올인했다. 박 대표는 "이준석 후보는 작심한 듯 정책 허점에 초점을 맞춰 이재명 후보를 집중 공 략했고,이재명 후보는 진땀을 흘렸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는 중국·대만 모두에 게 셰셰('고맙다'는 뜻의 중국어)라고 하는 등 너 무 친중국적"이라고 공격하자 이 후보가 "뭐든 극 단화한다"고 방어한 장면이 대표적이다.

② 안정감 대 순발력

이재명 후보에 대해 최병천 소장은 "구체적인 논 쟁은 피하고, 안정감 있는 이미지를 전달하려 애 썼다"며 "평정심을 잘유지했다는 점에선 득점했 지반, 이 후보특유의 날카로움을 드러내지 못했 다"고평했다. 반면에 이준석 후보는 토론 내내"사 이비 종교, 노쇼 후보, 양치기 소년"등 강한 표현 을 써가며 이재명 후보를 도발했다. 이준한 교수 는 "닥치고 공격(닥공) 스타일로 자신의 정책 이 해도와 화려한 언변을 부각했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도 이재명 후보 공세에 나섰지만, 순 발력은 다소 부족했단 평가다.

손국희·김규태·하준호 기자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순간에 곁에 있겠습니다."

◆aetna[®] Anthem HealthKeepers Plus







간병인 서비스 (Homecare Services)

24시간 맞춤형 간병 서비스 환자 개개인에 맞춘 경험과 정성으로 돌보는 프리미엄 케어

"신청부터 승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도와드립니다.

가족 간병인 가능 및 환영 *간병인으로 일하실 분 찾습니다.





첼튼햄 홈케어

문의 전화: 800-764-1005

버지니아 | 펜실베니아 | 메릴랜드 | 조지아 | 뉴저지 7501 Little River Tpke., Ste 205, Annandale, VA 2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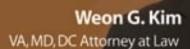
김원근 변호사 유언상속・이혼



Probate·상속재산 정리절차·한국의 유산상속분쟁 트러스트·유언·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취소 가능 트러스트·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합의 이혼·재판 이혼·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자녀 양육권·양육비 생활비 청구

8200 Greensboro Dr., #900 TEL: 571-278-3728 McLean, VA 22102



지귀연 "소주도 안 얻어먹어" 민주 "사법부에 입증 맡길 것"

지 "삼겹살 사주는 사람도 없어" 민주당 "룸살롱서 삼겹살 먹냐" 해당 술집 "우린 룸살롱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지귀연 서울중앙 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지 부장판사가 주점에서 남성 2명 과 어깨동무를 하고 앉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지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10 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 시 작 전 발언을 통해 "평소 삼겹살에 소 맥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 의혹 제기 내 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자 민주 당은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먹냐. 뻔뻔 한 거짓말"이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지 부장판사가 이날 "그런 데(룸살롱) 가서 접대받을 생각도 해본 적 없고,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주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해

명하면서 "중요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 및 계속된 의혹 제기나 외부 자극·공격에 재판부가 일 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1시 50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 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사진을 국민께 공개한다"며 "앞서 공개한 룸살롱 현장 사진과 지귀연 판사가선명하게 찍힌 사진의 인테리어 패턴도소품도 똑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지 판사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시간"이라며 "당장법복을 벗겨야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지난해 8월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 2명 '제보 사진' 외에 비어있는 룸, 개방된 홀에서 평상복 여성들과 남성들의 사



민주당이 19일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사진.

[사진 민주당 선대위]

진 등 2장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 2장은 민주당이 사후 촬영한 것이라고 한다.

당초 제기한 직무 관련자 접대 의혹, 등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과 관련해선 기

"사진 속 동석자는 법조 관계 인물, 직 무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되는 분들"이 라며 "저희는 접대를 받았다고 판단하 지만 그에 대한 입증은 사법부에 맡기 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 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특정 판사에 대한 악의적 좌표 찍기와 마녀사냥은, 이재명 후보식 '맞춤형 법 정'을 세우려는 공포의 전주곡"이라며 "애매한 사진만 공개하며 인격살인 하지 말고,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즉시공 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해당 술집 은 지난 14일 김용민 의원의 접대 의혹 폭로 이후 문을 닫고 간판도 뗀 상태였 다. 해당 술집 사장은 당시 언론에 "우 리 가게는 룸살롱이 아니다. 여성 도우 미도 두지 않는다"며 "술값은 양주 한 병당 20만~30만원"이라고 밝혔다. 관 할 구청인 강남구청에 따르면 해당 업 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등록 됐다.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달리 단란 주점은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다.

하준호·김정연 기자

JTBC 손들어준 법원 "중계권 입찰 문제없다"

지상파 3사가처분신청모두기각 법원 "보편적시청권주체는국민" 지상파 3사의 권리 아니라고 판단 입찰·판매방식등적법성인정받아 JTBC "공정위 제소 등 조치 검토"

법원이 "JTBC 등의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입찰을 중지해 달라"는 KBS ·MBC·SBS 등 지상파 3사 가처분 신청 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 (부장 전보성)는 지상파 3사가 JTBC 와 중앙그룹 스포츠 마케팅 기업 피닉 스스포츠인터내셔널(PSI)을 상대로 낸 '입찰 절차 속행 중지' 가처분 신청 을 19일 기각했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지난 9일 2026 ~2032 동·하계 올림픽과 2025~2030 FIFA(피파) 월드컵 방송 중계권 입찰 절차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 처분을 냈다. "올림픽과 월드컵은 국민 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로 방송법상 '보 편적 시청권'의 대상이므로 JTBC는 중 계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보편적 시 청권의 권리 주체는 '국민'이고 지상파 3사의 권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보 편적 시청권의 향유 주체는 '국민'이고, 그 목적은 방송사업자들의 경쟁 제한 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알권리 내지는 정보접근권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방송법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공법(公法)상의무를 규정했지만, 다른 방송사업자인 지상파 3사에 사법(私法)상의 금지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설명했다. 또 "지상파 3사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대신 행사(대위)할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입찰 방식이 방송법에 위 반된다는 지상파 3사 주장도 받아들이 지 않았다. 경쟁 입찰의 경우 "JTBC가 입찰을 실시한다는 사정만으로 중계 방송권의 판매·구매에 관한 협의 과정 이 완전히 차단된다거나 그러한 절차 를 아예 배제할 의사라고 볼 수 없다", 공동계약 금지 조건에 대해서도 "방송 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 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강 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올림픽·월드 컵 중계권의 '패키지 판매'에 대해서도 "JTBC가 중계권을 낙찰받을 당시와 동일한 입찰 조건을 적용한 것"이라며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렵다거나 상 당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는 어렵다"고 했다. JTBC가 설정한 입 찰 조건 등은 중계권자의 정당한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본것이다.

JTBC는 법원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

해 "이번 판결은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정당한 절차가 방송법상 적법성을 인 정받은 결과"라며 "보편적 시청권을 진 정으로 보장하는 방식은 다양한 채널 과 플랫폼을 통한 실질적 선택권 확대" 라고 강조했다. JTBC는 특히 지상파 방송의 중복 편성 관행이야말로 시청 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중복 편성은 전 파 자원의 낭비이자 시청자 선택권 제 한으로, 보편적 시청권의 근본 취지와 어긋난다"고 하면서다.

JTBC는 또 "이번 소송은 공정 경쟁 질서의 훼손 시도"라며 "정당한 절차 를 방해하려는 시도에 대해 공정거래 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 례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 고 밝혔다.

JTBC는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지 상파뿐만 아니라 케이블, 종편, OTT, 디지털 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자들과 의 중계권 재판매 추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JTBC는 "올림픽과 월드컵의 감동을 더 많은 시청자에게,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스포츠 중 계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운채·이영근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347-3788



대한민국 △1 **중앙일보** 2025년 5월 20일 화요일

유심정보 털린 SKT…개인정보·IMEI 유출 가능성도

SK텔레콤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 듈) 정보해킹 사건에서 사실상 전 가입 자에 해당하는 유심 정보가 유출된 것 으로 확인됐다.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IMEI) 등 민감한 정보를 저장한 서버 가 공격받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과학 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등 민관합동조사단(조사단) 은 19일 2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악성 코드는 25종,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는총 23대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1차 조사 당시 악성코드 4종, 감염 서 버 5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 다. 유출된 유심 정보는 가입자 식별 번호(IMSI) 기준 2695만 7749건이다. 2500만 명(알뜰폰 이용자 포함) 수준인 SKT 전체 가입자 수보다 많다. 스마트 폰 이외에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 각 종 단말기에 탑재된 유심과 일시중지 된 유심 정보까지 포함한 수치여서다.

조사단은 29만 1831건의 IMEI를 포 함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e메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 성이 있다고 밝혔다. 추가 조사 과정에 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들 중 이런 정보를 임시 보관하는 서버 2대를 확인 하면서다. 다만 이 서버에서 실제 정보 가 유출됐는지는 알 수 없다. 지난해 12 월부터 지난달까지는 기록(로그)이 남 아있어 유출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

다. 그러나 이 서버에 악성코드가 처음 설치된 시점인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 반동안은 기록이 없어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개 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 자는 2년 이상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 을 보관해야 한다. 다만 문제의 서버는 임시 저장 역할을 하는 서버라 이 같은 의무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지난 11일 해당 서버에서 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한 과기정통부는 SKT 로 하여금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피 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 록 요구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난 13일 통보했다.

차 조사 때보다 실제 해킹 피해 규모 가 늘면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더 커졌다. SKT는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 출이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로그가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정보가 유 출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입자 들불안은 커지고 있다.

다만 최악의 경우로 거론되는 '복제 폰'을 만드는 이른바 '심스와핑' 범죄 가 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게 정부와 SKT 의 설명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 워크정책실장은 "제조사나 사업자(통 신사) 판단으로 볼 때 복제폰은 물리적 으로 불가능하고, 만에 하나 만들어졌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SKT 침해사고 관련 민관 합동 조사결과 2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어도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게 완벽하 게 차단되므로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 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류정환 SKT 네 트워크인프라센터장도 이날 SKT 일일 브리핑에서 "복제폰은 사실상 불가능 하고. 고도화된 FDS(비정상 인증 차 단시스템)를 통해 망에서 차단하고 있 다"며 "SK텔레콤이 보유한 망 운용 데 이터, 고객 관련 데이터, 경찰청 데이터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KT 측은 "IMEI 외에도 제조사만 보 유한 인증값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설 령 IMEI가 유출됐더라도 제조사의 인 증을뚫을수없다"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해도 전문가들은 IMEI 유 출 가능성에 대비해 유심을 교체할 필

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방식 의 이심(eSIM·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 듈)이 가능한 단말이면 이심으로 바꾸 는 것도 방법이다. 김용대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교수는 "IMEI 유출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우회가 가능하기에, 유출됐을 가능성 이 있는 IMEI 29만건에 해당하는 고객 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유심 교체 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29일 조사단 이 공개한 1차 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 다. 당시 조사단은 서버 5대를 우선 조사한 결과, 유출된 정보는 전화번 호·IMSI 등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 는 4종과 유심 정보 처리 등에 필요한 SKT 관리용 정보 21종이라고 밝혔고,

IMEI의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 다. 조사 결과가 달라진 이유에 대해 조 사단은 "1차 조사 당시엔 IMEI를 담고 있는 서버 38대의 악성코드 여부를 집 중적으로 점검해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후 서버 3만대를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IMEI를 임시 저장하는 서버의 악성코 드감염이 추가로확인됐다"고 말했다.

SKT 책임론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2022년 6월 악성코드가 심어졌는 데, 3년 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류정환 SKT 센터장은 이에 대해 "죄 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침해를 잡기 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며 "어렵지만 백신을 설치하거나, EDR(스마트폰 등 단말기에서 해킹이나 악성코드 같은 보안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대 응하는 기술)등을 적용하겠다"고 부연

조사단은 현재까지 드러난 총 23대 감염 서버 중 15대에 대한 정밀 분석을 완료했다. 다음달 말까지 남은 8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최종 조사 결과 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진척 상황에 따라 추가로 악성코드가 나올 수도 있 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실장은 "SKT에 는 만에 하나 피해가 발생할 때를 대비 해 보상책을 확실히 마련하라고 요구 했다"고말했다.

김남영·어환희 기자

SKT 파고든 악성코드 25종…24종이 중국 해커 '단골수법'

SK텔레콤(SKT) 해킹 사태를 조사 중 인 민관합동조사단(조사단)이 SKT 서버에서 현재까지 25종의 악성코드 를 발견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 중 24 종은 중국 당국의 지원을 받는 것으 로 의심되는 해킹 집단이 주로 사용하 는 'BPF도어(Berkeley Packet Filter Door)'계열악성코드로확인됐다.

조사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 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 23대의 SKT 서버 감염을 확인해 15대에 대한

포렌식 등 정밀분석을 완료했고, 나머 지 8대에 대한 분석과 다른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를 위한 5차 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BPF도어 계열 24 종등총 25종의 악성코드를 발견해 조 치했다"고 밝혔다.

BPF도어는 해커가 서버 데이터를 탈취하기 위해 정상적 인증이나 네트 워크 감시 체계를 피해 외부에서 몰 래 접근할 수 있게 설치하는 백도어 (Backdoor·뒷문) 악성코드다. 은닉성

이 높고, 장기간 평범한 파일로 시스템 에 잠복해 있다 해커가 보내는 특정 신 호에만 활성화돼 탐지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B

PF도어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2022년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 가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다. PwC 는 중국 해커 집단인 '레드 멘션(Red Menshen)'이 중동과 아시아 지역 통신 사를 공격하며 BPF도어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후 미국 보안업체 트렌드마이크로 도지난날 보고서를 통해 '지능형 지속 위협'(APT·특정 표적에 대해 장기간 지 속적으로 해킹을 시도하는 공격 유형) 을계속해온레드멘션이 BPF도어의 숨 겨진 조작 주체며, APT 그룹들이 BPF 도어의 변종 백도어까지 개발해 터키와 홍콩 등의 통신사를 표적으로 삼았다 고발표했다

BPF도어를 사용하는 중국 해킹 집 다은 향후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

을 사이버 공격의 주목표로 삼을 가능 성도 크다. 트렌드마이크로는 이미 지 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 통신사가 BPF도어 공격을 받았다고 했고, 대만 보안기업 'TeamT5'도 언론 을 통해 중국 해킹 그룹이 한국을 계속 표적으로 삼았으며 앞으로도 공격 우 선순위가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 난 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해킹 사 태와 관련해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 (문제)이라고 생각해야 할 상황으로 본 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발 언으로 해석된다.

윤정민 기자

슡ℝ

특전사 참모장 "곽종근, 문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다 복창"

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문 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다"고 복창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 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 두머리 사건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이 12·3 비상 날 공판에는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 부참모장(준장)이 지난 공판에 이어 증 인으로 출석했다. 박 참모장은 12.3 비 상계엄 선포 당시 전투통제실에서 곽 전 사령관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았던 인물이다. 박 참모장은 곽 전 사령관이 국회 내 병력 투입을 독촉하는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곽 사령관이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 겠습니다'라고 복창하는 것을 들었다" 고도말했다

앞서 곽전 사령관이 지난 2월 헌재 탄 핵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비화 폰으로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혐의 4차 공판을 마 친후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십어내라"고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다만 박 참모 장은 당시 곽 전 사령관 통화 상대가 윤 전 대통령인지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 했다. 그는 "통화대상이 누구인지는 잘 몰랐다"며 "장관이 전화하지 않았을까 추측했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신문 과 정에서는 박 참모장의 일기가 법정 내 화면에 띄워졌다. 최서인 기자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거양한 차이나 오래가는 임플란트"

Treatment

- 잇몸치료 - 치아교정 Periodontal Orthodontics

Invisalign Surgery - 치아성형 신경치료 응급환자 Veneer Root Canal

Lumineers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v 건너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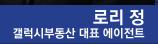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1610 Westmoreland SALE 맥클린 고등학교 옆. HOA 없음. 홈스테이 하기 딱 좋은 집, 방 7, 화장실 5.5. \$1,999,900 McLean, VA 실용적인 집 구조, 맥클린 다운타운 도보 가능, 집 앞 버스정류장 등 교통 편리 Woodbridge 의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 에 있는 잘 생긴 싱글홈 Woodbrid COMING SOON \$970,000 4/20 마켓에 올라올 예정 9490 VA Center Blvd \$501,000 복수 오퍼 받아서 리스팅 가격보다 높은 오퍼 선택, 3주만에 세틀먼트 완료 SELL 매매 1474 Hampto \$1.3M 다수의 오퍼 받아 경쟁 시켜서 listing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세틀먼트, 셀러*바이어모두 해피 SELL McLean, VA 렌트 \$1,2M 마켓에 내 놓자 마자 좋은 오퍼 받고, 1/21/25 세틀먼트 완료 SELL 10** Salt Meadow SOLD \$2.73M 한국에서 동영상으로 집을 보고 계약, Cash buyer, 1/21/25 세틀먼트 완료 BUY DC 내 위치 좋은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150K 델리샵(DC) 사업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운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매매

<mark>무실</mark> (703) 622-0312 <mark>직통</mark>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그 외 30여채 더 있음

우리말 바루기

푸르른 5월

'어린이날 노래'라는 동요에서 "오월은 푸르 구나, 우리들은 자란다"는 구절 때문인지 '5 월' 하면 '푸르다'라는 단어가 자연스레 연상 된다.

새봄에 돋아난 연둣빛 새싹이 비로소 울 창해져 푸르른 잎으로 무성해지는 시기가 바로5월이다.

간혹 여기서 '푸르른'이라는 단어는 틀린 표현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독자가 있 을 법하다. 예전에는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 "가을이 되면 하늘이 유독 푸르르다" 등 과 같은 표현에서 '푸르르다'는 '푸르다'의 잘 못이므로고쳐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푸르르다'는 운율을 중시하는 시나 노래 등에서 많이 사용돼 왔다. 그러나 표준어가 아니기 때문에 시나 노래 등이 아닌 일반적 인 글에서는 '푸르르다'를 쓸 수 없었다. "눈 이 부시게 푸른 날" "가을이 되면 하늘이 유 독 푸르다"와 같이 '푸르르다'는 모두 '푸르 다'로고쳐써야했다.

그런데 언중(言衆)이 '푸르르다'를 시나 노래뿐 아니라 일반적인 글이나 일상적 대 화에서도 자주 사용하자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러한 언어적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푸 르다'와 '푸르르다'의 쓰임이 다르다며, '푸르 르다'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것이다. 결 국 '푸르르다'는 2015년 11월 25일 국어심의 회의 결정에 따라 표준어로 등재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 낀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 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 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①중앙일보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 칼럼

재외국민 불신하는 선관위

공동체사회 법규 준수는 중요하다. 미국과 한국 행정당국의 법규 제정과 시행에는 인식차가 엿보 인다.

중앙집권 역사가 공고한 한국은 시민의 자율 권 우선보다 통제를 우선할 때가 많다. 법규를 만 들고 시행할 때도 '시민이 위반할 것이다'고 의심 부터 하는 식이다. 자연스레 통제 위주 관리시스 템이 자리 잡는다.

미국은 법규 제정과 시행 시 시민의 자율권에 무게 추를 두곤 한다. 공동체가 규칙을 세우면 시 민이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를 우선한다. 시민에 게 자율권을 최대한 허용하는 식이다. 물론 모두 가 합의한 규칙을 시민이 위반할 경우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의 재외선거제도를 바라보는 한국 정부 와 미국 한인사회의 시각차도 유사하다. 해외 한 인사회는 1990년대부터 재외국민 참정권을 보장 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우리를 믿고 재 외선거제도를 시행해 달라는 외침이었다. 덕분에 2012년 제19대 총선부터 재외선거가 실시됐다.

하지만 재외선거제도를 바라보는 한국 정치권 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식은 '의심과 걱정'이 앞섰다. 민주주의 시민의 자율권보다 통제를 우 선했다. 명목상 참정권은 보장하되 재외선거운동 은 대폭 제한했다. 투표 참여를 위한 편의증대 대 신 관리 중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 이면에는 '재



김형재 사회부 차장

외국민의 시민의식을 믿지 못하겠다'는 중앙집권 식 사고가 깔려있다.

결국 재외선거제도 시행 10년이 넘어서도 오프 라인 재외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의 선거운동 관련 대 면행사, 전단배포, 신문광고, 인쇄물(전단, 홍보 지)을 모두 금지했다. 정당별 해외 언론 지면광고, 대선 후보자의 해외 신문·잡지 기타의 인쇄광고 도 불가능하다. 한국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 회는 한인사회가 요구하는 우편투표에도 난색을 보인다. 그나마 재외공관별 추가투표소를 기존 3 곳에서 4곳으로 확대했을 뿐이다.

재외선거운동을 사실상 금지하고 우편투표 효 용성을 외면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부정선거 가 능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는 우편투표 도입 불가 이유로 "공정성과 안정성 확보 어려움" 을 내세워 "우편투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허위 신고, 대리투표 등 비대면 투표 방법의 문제점 해 소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외공관에 파견된 재외선거관은 주재국 주권 침해 가능성에도 선거범죄 예방·단속 업무를 강 행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현지 선거운동을 풀어주면 관리가 안 된다"며 통제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정치권은 선거철 때마다 재외선거 편의증 진을 약속하지만, 선거법 개정은 하지 않고 있다. 전체 재외유권자 약 215만명, 등록 유권자 약 20 만~25만 명의 표심이 누구에게 유리한지를 놓고 저울질만 반복한다. 재외국민을 '대한국민'으로 인정하는 대신 변방의 유권자로 남아있기를 바 라는 시선도 읽힌다.

제21대 한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 등록한 재외 유권자는 총 25만8254명. 미국에서는 5만1885명 이 선거에 참여한다. 이들은 길게는 수백 마일을 달려 재외투표소를 찾아가야 한다.

반면 독일은 재외유권자 약 300만 명을 대상으 로 우편투표를 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우편투표 제도(Federal Write-In Absentee Ballot)를 통 해 재외국민 약 900만 명의 참정권을 보장한다.

재외유권자의 부정선거 가능성 주장은 언뜻 그럴싸해 보인다. 하지만 현행 재외선거제도가 재 외국민의 시민의식과 자율권을 존중하지 않는다 는 사실은 명백하다.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 섰다. 국가주도 행정문화가 통제와 감시 대신, 민 주주의 시민의식 고취 독려로 바뀔 때다.

이아침에

모르는 곳을 향하여



이창민 목사·LA연합감리교회

얼마 전, 코펜하겐 공항의 한 탑승구에 특별한 여 행객들이 모였다. 이들의 여정이 남달랐던 이유 는 '모르는 곳을 향하여' 떠나는 여행이었기 때문 이었다.

목적지를 알리는 탑승구 전광판에는 '유럽 내 미상의 목적지(Unknown Schengen)'라고 적혀 있었다. 이 비행기는 1985년 체결된 '솅겐 (Schengen) 협정'에 따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 는 유럽 내 30여 국가 어디든 갈 수 있지만, 그 중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는 미스터리 비 행기였다.

승객은 물론, 기장을 제외한 승무원들조차 행 선지들 모든 채 비행에 나설 성도로 도작지에 대 한 보안이 철저했다. 이 비행기는 이륙 후 두 시간 이 지나서야 목적지를 밝혔다. 비행기가 향하는 곳은 스페인의 중세 도시, 세비야였다. 여행을 마 친 많은 이들이 세비야의 풍경보다, '모르는 곳을 향하여' 떠나는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에 느꼈던 기대와 설렘이 기억에 더 오래 남는다는 후기를 남겼다.

목적지를 모른 채 여행을 떠나는 미스터리 여

행이 얼마나 인기였는지, 티켓은 발매 4분 만에 매 진되었다고 한다. 한국의 한 언론은 이 소식을 전 하며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를 했다.

"한국에 없는 상품, 우리야 뭐… 나라와 국민 전체가 목적지 미상의 미스터리 여행을 하는 중

이 문장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 는 정치, 불투명한 경제, 흐릿한 미래가 맞물린 현 실에 대한 자조적 진단이었다. 전체가 목적지 미 상의 미스터리 여행 중일지도 모른다는 질문이 이민자로 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했다.

우리가 찾은 미국은 표면상의 목적지였을 뿐, 그 너머에서 어떤 삶이 펼쳐질지 그 누구도 예측 할 수 없는 미스터리 여정이었다. 흥미로웠던 점

은, 코펜하겐에서 비행기를 탄 여행객들은 모르 는 곳을 향하여 함께 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 로 강한 동료의식을 느꼈다는 것이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낯선 세계를 향해 함께 가고 있 다는 공통점이 이들을 하나로 묶었다.

이민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민자는 각자의 사연 과 꿈을 안고 익숙함을 떠나 모르는 곳을 향하여 길을 나선 사람들이다. 이민자로 사는 우리는 모 두살아온 삶의 궤적이 다르고, 생각의 방향도서 로 다르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 모르는 곳을 향한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 그 여행에 나선 이들은 서 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바라보아야 한다. 비방보다는 위로, 무관심보다 격려, 물신보다 신 뢰로서로를 감싸안아야 한다.

목적지는 여전히 불확실할 수 있다. 그러나 서 로서로 붙잡아 주는 그 순간, 이 길은 고단한 생존 의 현장이 아니라 은혜의 여정이 될 것이다. 낯선 길일수록, 함께 걷는 이가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 는 '좋은 이민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모르는 곳을 향해 갈지언정 서로의 길이 되어줄 품 넓은 사람들과 함께하기에.



學者 最外의 登记

11-0 = उन्हें अंग्रेस के के प्राप्त के प्राप्त के क



410-370-4229 · 301-275-1494

EMET.Inc NMLS #201332

\$485,000

\$425,000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1. 웃슨 하이, 프로스트미들 2025 새싱글 \$1,450,000 방 5, 화 5.5, 5,000sqft, 차고 2,

\$1,050,000 방 4. 화3.5. 차고2. 4.000saft

\$1,150,000 Rocky run middle, Polpa Tree Elementary, 최고 학군, 방6, 화3.5 4,000sqft, 성당근처, 66/28/50/29 \$1,150,000

새집같은 모델홈, 모던 디자인, 전부

리모델링, 방 6, 화4.5, 차고2, 솔라 페널, 5. 센터빌 싱글, VIRGINIA RUN 방 4. 화4. (메인/ 풀베스). 차고2. 3,200sqft, 전부 업그레이드, 29/28/66



방 4, 화3.5, 차고2, 3,300sqft, 센터빌 하이 새집처럼 전부 업그에이드, 새 지붕, \$639,000

방3, 화2.5, 차고1, 좋은학군 /동네, Coming Soon 전부 업그레이드 RT1/95/234 8. 사우스라이딩 타운

\$645,000 2014년, 방3, 화2.5, 차고2,

2012년, 방, 화3.5, 최고 학군

덜러스 공항



Rt29, Rt66, Giant, Shopping mall 13. 챈틀리 새타운 렌트 \$3,600 방 3, 화3.5, 차고2, 2,400sqft, 28/50/66/286. w costco, 교통요지, 쎈터빌 인접

밝고 환한 8층, elevator 타이슨스 코너/메트로, 차고2,

테라스 방2, 화2, 1335sqft

방3, 화2,5, 차고1, 1,778sqft

201 14. 매매/리스

11. 맥클린 콘도

12. 게인스빌 콘도

*센터빌 중심 성업중 미장원 은퇴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게인스빌 성업중 미장원 렌트 \$3,300/m, 1300sqft, 29/66, 7-1192

GAINESVILLE, VA 20155 방 4, 화 4.5, 차고 2, 4433 sqft, 2004, 0.3acre, 페리오, 스크린덱, 계단 없는 메인레벨 1층, 방 2, 풀베스 2.5

황계실 571-239-6054

10. 게인스빌 골프 싱글

게인스빌 레이크 매나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

SEA LEAD

9. 애쉬번 타운

Coming Soon 8277 ROXBOROUGH LOOP,

전면광고 △15



CORE Physical Therapy&Rehab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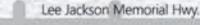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 · 목, 허리 통증(디스크, 좌골신경통)
-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28

Walney Rd.

김우기 통증•재활 물리치료

50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H마트 주차장 건너편 **703.543.2322 * 855.870.1235**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뜨레쥬르 제과점 옆 410.480.0100 • 800.564.4429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인터넷보다 저렴한 최저가 한국항공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레만 호수의 휴양도시 몽트뢰 & 중세 수상성 시옹성

-알프스최고봉몽블랑과매력적인산악마을샤모니

- 스위스 대표 도시 베른, 로잔, 제네바까지 완전 <mark>정복!</mark>

- 용프라우지역의중심인터라켄&유럽의지붕용프라우요호

-산간마을체르마트&전설의봉우리마테호른

\$2,990

\$4,590+98

13박 14일

(항공포함)

6박7일

KOREAN AIR 🔔 D E L T A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끝! 한국유심 \$50 동시 구매하시면

최저가 유심/데이터 판매 전화, 문자 무제한! 부 투어가이드

할인 해드립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Wonderful TOUR 2025 Yearly Schedule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5/23~5/26 3박4일 \$1290+항공

스위스 알프스 일주 6/10~6/18 8박9일 \$4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2차(영어&한국어) 6/17~6/27 10박11일 \$2990+항공

영국일주 6/18~6/29 11박12일 \$5890+항공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6/21~7/4 13박14일 \$5390+항공

북유럽 4개국 6/24~7/4 10박11일 \$4390+항공 독립기념일 캐나다 록키 다양악 6/25~6/30 5박6일 \$2290(항공포함) 동유럽

\$2990+항공 6/28~7/5 7박8일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6/30~7/3 3박4일 \$1290+항공

여름방학 특선 서유럽 7/8~7/18 10박11일 \$3590+항공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8/2~8/15 13박14일 북유럽 4개국

8/5~8/15 10박11일 \$4390+항공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8/8~8/13 5박6일 \$2290(항공포함) 알래스카 일주

8/14~8/20 6박7일 \$2990(항공포함) 아이슬란드&그린란드 크루즈 8/21~8/31 10박11일 \$2990+항공/오션뷰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8/29~9/1 3박4일 \$1290+항공

알래스카 크루즈 9/8~9/15 가 가입박 \$2190(부터~/인사이드), \$2590(부터~/가려진 발코니) 정통 서유럽 9/9~9/19 10박11일 \$3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3차 9/16~9/26 10박11일 \$2990+항공 그리스&튀르키예 9/24~10/4 10박11일 \$2990+항공

동유럽 & 발칸 크로OIEI아 9/30~10/13 13박14일 \$4590+항공 정통 동유럽

9/30~10/6 6박7일 \$2790+항공

독일 일주 10/2~10/15 13박14일 \$5690+항공 크로아티아 발칸 10/5~10/13 8박9일 \$3590+항공 스페인&포르투갈

10/7~10/17 10박11일 \$3390+항공 정통 서유럽 10/9~10/19 10박11일 \$3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4차

10/14~10/24 10박11일 \$2990+항공 프랑스 일주 10/16~10/29 13박14일 \$5690+항공

지중해 크루즈 10/17~10/26 9박10일 \$2990+항공 부터~/인사이드 \$3490+항공 부터~/오션뷰

튀르키예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회) 10/21~10/29 8박9일 \$22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5차

10/21~10/31 10박11일 \$2990+항공 산EI아고 순례길 10/28~11/7 10박11일 \$3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6차 10/28~11/07 10박11일 \$2990+항공

일본 크루즈 11/3~11/14 11박12일 \$2490+항공 부터~/인사이드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시내산) 11/11~11/24 13박14일 \$3980+항공 이스라엘&요르단 11/14~11/24 10박11일 \$2980+항공 이집트 두바이 11/21~12/2 11박12일 \$3899+항공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11/26~11/30 4박5일 \$1190+항공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12/23~12/28 5박6일 \$2490+항공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12/23~12/29 6박7일 \$2490+항공 우유니사막/파타고니아

1/27/2026 10박11일 \$7800+항공 아프리카 두바이 2/19/2026 15박16일

번역및 공증 혼인증명서 시민권

\$4,590+ਝਤ

6/10~6/18

미지의땅!

*산토리니옵션

8/14~8/20

9/30~10/13

8박9일

으 무직원(센터빌지점)

해시 의젓

■제출 할 곳:info@toptravelusa.com **■무의:**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탑여행사추천

생년 물투이는 탑여행사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떠나는 업그레이드된 항공 여행입니다.

3차 **7/08~7/18(여름방학 특선)** 4차 9/09~9/19 5차 10/9~10/19

\$3,590+%3 10박11일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까지 보는 최고의 일정

1차6/24~7/4 2차8/5~8/15 \$**4,390**+% 10박 11일

탑여행사추천

\$2,290 1차6/25~6/30(독립기념일특선) 까간 (항공포함) 5박6일 2차**8/08~8/13(여름방학 특선)**

\$2.990+% 10박 11일

6박7일

\$3,590+\$\frac{3}{2}

\$5,690+93

11/21~12/2 11박12일

1/27~2/6/26 10박11일

2/19~3/6/26 15박16일

일본여행을 한번에!!

5차

10/21~10/31

일본크루즈|11박12일

\$2990+항공부터

3. 최고급 호텔 숙박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콘래드 서울/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감/거제 소노감 부산 그랜드조선/경주 라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호텔

4. 엄선된 호텔과 현지 식당 특식으로 대접합니다

11/3~11/14

인사이드

\$3,899+[%]

\$7,800+\$3

\$12,500+%

13박 14일

10박11일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특급 관광 유럽의역사와 매력을 느낄수 있는 상품. \$2,790+93

유럽 여러 루트로 출발해 최종 목적지 스페인 갈리시아 주의

9/30~10/6

9/24~10/4



🦖 원더풀투어

전세계에서하루가마지막으로시작되는

미국에서가장신비한마력을가진

Wonderful TOUR 애난데일 센터빌 엘리컷시티 홍수향, 해나문

미세스신, 케이티김 엘렌리, 켈리서

NCL NORWEGIAN •아이슬란드

8/21~8/31 | 10박 11일 \$2990(+항공/오션뷰)

•일본 ㅋ르ㅈ

11/3~11/14 | 11박 12일 \$2490(+항공부터~/인사이드) (도쿄, 나고야, 오시카, 오키나와, 가고시마, 나가시키)

윤태웅 그레이스조 세라강 레나고

\$3.39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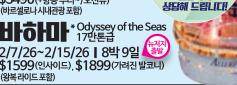
10박11일

ROYAL CARIBBEAN 알래스카* Quantum of the Seas 17만톤급 9/8~9/15 | 7박8일

\$2190(부터~/인사이드) \$2590(부터~/가려진 발코니) * 지중해 * Allure of the seas 23만톤급

10/17~10/26 | 9박10일 \$2990(+항공부터~/인사이드) \$3490(+항공부터~/오션뷰) (바르셀로나시내관광포함)

◆ **HF하다마** * Odyssey of the Seas 17만톤급 2/7/26~2/15/26 | 8박9일 \$1599(인사이드), \$1899(가려진 발코니)



원더풀 전문 에이전트

한국관광공사

10박 11일

\$2990_{⁺ਏ}공

영어&한국어 가이드

1,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2차 06/17~06/27

3세대 투어

아프리카 두바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에

세계인의 로망, 환상의 프랑스 일주는 여유롭게,

우유L以막&IIFI고LO

가장 디테일하게 관광할 수 있는 상품!

이집트 두배이

도착하는 도보순례.

10/28~11/7

10/16~10/29

고국여행과

3차

09/16~09/26

오사카13박4일

9/27~9/30 실속 디럭스

4차

10/14~10/24

동경13박4일

10/25~10/28

탑여행사 한국지사가 직접운영합LIC

6차

10/28~11/07

동경&오사카15박6일

11/8~11/13

Together in Korea

^{3박4일} **서남권**

^{4박5일} 동해안

2박3일 제주도

한 549-항공 / 영 \$749-항공

^{ლ7일} 제주+동해

^{9박10일} 전국일주

메모리얼 데이 🕵

한 \$1549+항공 / 영 \$1879+항공

한 \$2199+항공 / 영 \$2599+항공

한 \$829+항공 / 영 \$929+항공

한 \$989+항공 / 영 \$1119+항공

동남아 연합투어 (2인이상 출발보장) ^{3박5일} 방콕/IHEH야*\$490*+항공 박7일 내륙 ^{3박5일} 하노이/하롱베이 \$690+항공 한 \$1499+항공 / 영 \$1699+항공

^{3박5일} [남 \$450⁺향공 3박5일 LI트랑/달랏\$450+항공 3박4일 [H만 \$690+항공 **3박5일 싱가폴 \$850**+행공

일본 연합투어

^{3박4일} 동경 \$1149 ^{송공} 3박4일 오사카 \$1149·항공 5박6일 동경&오시카*\$1899+****

TMCI 고국건강검진

VIKING RIVER CRUISES

바이킹 크루즈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520 서울삼성병원(Primary) 남 \$1340/여 \$1660

서울대병원(기본검진) 남/여 \$940

세브란스(미국국적) 남 \$720/여 \$770

현대이산병원/서울대병원 가천대길병원



\$12500+항공

01기라/왓킨 5/24~5/26 \$699

부관광 탑여행사가이드가직접 행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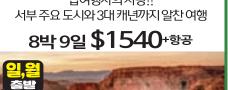
5박6일 \$1350 나이아가라/토론토/몬트리올/퀘백/플래츠버그/뉴욕

로맨틱시티낭만캐나다 나이아기라폭포 옆 Hotel 숙박

2박3일 \$650 대자연의아름다운나이아기라 나이아가라폭포옆Hotel숙박 스카이론타워 스페셜 특식(옵션)

1박2일 \$399 탑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루레이 티켓만 판매 \$25| 서부관광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오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캐나다 록키 4박5일 \$1190+항공

알래스카 6박 7일 \$1790+항공 옐로人톤 3박 4일 \$950+항공 매주 월,급출발

마운트 러시모어 3박 4일 \$1090+항공 (5/23, 7/4, 8/29)

학 탑여행사

TOPTRAVEL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제대로 설치해야

교체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①중앙일보 JoongAng Ilbo

0 임종범 대표 변호사(VA/MD)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703–333–2005 301-230-31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E2, R 비자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홍행츠)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직한 회사 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전액 지원 박사 과정

미국은 학부부터 다양한 학비 보조로 대 학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심지어 일부 분야에서는 박사 과정까지 장학금을 지급해 돈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수 백 명의 박사 중 한 명만이라도 대단한 성공 을 거둔다면 가성비가 좋은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명문대 중 박사 과정 에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대학을 소개한 다. 대개 경영, 컴퓨터 과학, 공학, 교육, 간호와 같은 분야가 대표적이다.

전액 자금 지원 옵션이 있는 박사 과 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가 있다. 사회적 경제적 잠재력이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 계는 금전적 수치로 잘 보이지 않는 분 야지만 파급 효과가 많은 곳에 투자하 기 마련이다. 아울러 그만큼 기회가 많 은 것이므로 9학년에 불과 하더라도 관 심을 갖는 것이 좋다.

특히 교육, 공학, 영어, 경영, 간호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학원 연구에 관심 이 있다면 전액 장학금을 받는 박사 학 위 프로그램을 선택해 볼만 하다. 이러 한 프로그램은 수업료, 기타 비용을 받 지 않고 연간 생활비도 사용할 수 있는 장학금을 제공한다. 일부는 건강 보험 및 기타 지원도 제공한다. 물론 재정적 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만족스러운 학 업 성취도와 특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US뉴스가 전액 장학금 박사 학 위 과정을 소개했다. 자신이 원하는 전 공이 있다면 학부 입학부터 제대로 알 아두는 것이 좋다.

#UCLA 영어학(캘리포니아)=6년 지 원 패키지에는 최소 2년 전액 펠로십, 여름장학금 4년 지원. 최대 4년의 조교 가 포함된다. 학회 여행 및 여름 어학 연 박사과정 전액 지원 명문대 전공

	ME 0E-11 E-0		
박사학위 전공	대학	지원 기간	비고
영어학	UCLA	6년	최소 2년 전액 펠로십
영어학	보스턴대	5년	
로망스어/문학	노터데임	5+1년	
연극학	노스웨스턴대	5년	
인류학	시카고대	8년	국적 무관
심리학	미네소타 주립 트윈시티즈	5년	
경제학	에모리	5년	
국제관계학	아메리칸대	4년	외국어 구사능력 입증
사회사업학	브린모어 칼리지(여대)		재정지원 경쟁 없음
교육학	뉴욕대	5년	30개 이상의 박사학위 과정
교육학	스탠퍼드대	5년	
교육학	유펜	4년	여름학기 장학금 가능
특수교육학	밴더빌트대	4년	
경영학	MIT	5년	노트북 2번 받아
경영학	라이스대		
경영학	아이오와 주립		거의 모든 입학생 혜택
경영학	뉴욕주립 빙엄턴	4년	
간호학	존스홉킨스대	3년	
간호학	버지니아 주립	4년	
간호학	예일대	4년	
공중보건생물학	하버드대	5년	유학생도 같은 혜택
화학공학	코넬대		입학사정 시 학업 성취도만 고려
재료과학/공학	듀크대	5년	
공학	미시간 주립 앤아버		
컴퓨터사이언스	브라운대		학위 취득 기간 전액 지원
컴퓨터사이언스	조지타운대	5년	여름방학 지원 보장 안돼
컴퓨터사이언스	워싱턴세인트루이스		3가지 펠로십중 하나 자격

짧게는 3년 길게는 8년까지 '학비+생활비' 제공

Tuesday, May 20, 2025

아이오와주립 경영, 거의 모든 학생 지원 브라운대 컴사는 학위 받을 때까지 전액 브린모어 사회사업, 재정 지원 경쟁 안해

수수업료를 위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보스턴 영어학(매사추세츠)=보스턴 대에서 영어학 박사 과정생은 매년 장학 금과 함께 수업료, 수수료 전액, 기본 건 강 보험료를 받는다. 지원금은 최소 5년 간 보장되며, 그중 2년은 강의 의무가 면 제된다. 이후 지원 기간은 연장될 수 있 지만,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노터데임 로망스어/문학(인디애나)=노 터데임대에서 프랑스어 및 프랑스어권 연구, 이베리아 및 라틴 아메리카 연구, 또는 이탈리아 연구에 중점을 둔 박사

과정생은 5년간의 학비 면제와 생활비, 의료 혜택이 포함된 연구비를 보장 받는 다. 5년 이내에 박사 학위 취득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학생은 대학교의 5+1 프 로그램을 통해 1년간 전액 지원 받는 포 스닥 연구원 펠로십을 받게 된다.

#노스웨스턴 연극학(일리노이)=학제간 박사 과정은 인문학, 사회 과학, 시각 예 술과정을 결합했다. 학생은 5년 전액 장 학금과 연간 생활비를 지원 받는다.

#시카고대 인류학(일리노이)=국적과 무관하게 학업 성적이 양호하면 최고 8

년간 연구비를 지원 받는다.

#미네소타 트윈시티즈 심리학=5년간 전액 장학금을 보장 받는다. 인지 및 뇌 과학, 산업 조직 심리학 등의 분야를 전 문으로 연구할 수 있다.

#에모리 경제학(조지아)=일반적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 생활 장학금은 2025년 가을부터 5년간 연간 4만324달 러이며, 전액 장학금은 연간 7만200달 러이다.

#아메리칸대 국제관계학(DC)=외부 학 비 지원을 받지 않는 국제관계학 박사 과 정 학생에게 연장 가능한 4년 펠로십을 제공한다. 졸업 전에 현대 외국어 구사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브린모어 칼리지 사회사업학(펜실베이 니아)=여대인 브린모어 칼리지 사회복 지학(Social Work) 박사 과정에 입학하 는 학생은 수업료 전액 면제와 생활비 지 원 혜택을 받는다. 웹사이트에는 "본교 모델에 따라 모든 박사 과정 학생은 동 등한 재정 지원을 받으며, 학업 기간 동 안 기본적인 재정 지원을 놓고 경쟁하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다.

#뉴욕대 교육학(뉴욕)=NYU의 '슈타 인하트문화, 교육, 인간개발 대학원'은 30개 이상의 박사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 한다. 발달심리학, 교육리더십, 아동교 육 등의 분야에서 박사 학위가 제공된 다. NYU 슈타인하트 박사 과정 정규 학 생은 연간 장학금(2025-2026 학년도 기 준 3만4883달러), 5년간 장학금 혜택을 받을수있다.

#스탠포드 교육학(캘리포니아)=견습 기회를 제공하며, 학비 지원, 펠로십 수 당, 조교 급여를 제공하고 학비를 충당 하는 5년 간의 재정 지원을 보장한다. 교 육대학원 박사 과정생은 교육 과정 연구, 교사 교육, 발달 및 심리 과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 2면 '전액 지원 박사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7535 Little River Tnpk.,#310-B Annandale, 22003



2200 Research Blvd., Suite 560, Rockville, MD 20850 jshin@roncanterIlc.com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케리 적추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아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변호사 선임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片헌 BlueCross BlueShield



윈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i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529플랜 열면 현금 보너스

〈학자금 저축계좌〉

이달 말까지 개설해야 6개월자동이체시 50불제공

자녀를 위한 대학 학자금 저축계좌 개 설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이 적기일 수 있다. 주 정부가 529 플랜 계좌를 열 고 꾸준히 납입하는 납세자들에게 현 금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주에서는 오는 31일까지 계좌를 개 설하고 6개월간 월에 50달러씩 자동이 체를 약속하면 50달러 현금 보너스를 제공한다. 40달러를 지급하는 유타나 25달러를 지급하는 버지니아에 비해 서 비교적 큰 혜택이다.

일부 주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혜택 을 주기도 한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5월 안에 529계좌에 10달러 이상 입금 한 납세자 중 6명을 선정해 5529달러 를 지급한다. 웨스트버지니아에서는 529계좌를 개설한 사람 중 1명에게 1 만5000달러를 줄 예정이다.



자녀 학자금 마련 저축계좌인 529 플랜은 투자 수익에 대해서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 학부모들 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529 플랜 관련 시민단체 칼리지 대학 저축계좌네트워크의 메리 모리스 회 장은 "유치원, 중학교 졸업 등 학업의 전환기를 맞는 5월은 교육에 대한 관심 이 커지는 시기"라며 "이 시점을 노려 많은 주가 계좌 개설을 위한 인센티브 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529 플랜은 연방 세법 조항에서 유 래된 학자금 저축 프로그램으로, 대학 등록금뿐 아니라 기숙사비, 식비, 교재 등 다양한 교육비를 세금 없이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 저축할 때는 면세가 안 되지만, 계좌 운용으로 얻어지는 수 익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법 개정으로 529계좌는 유연성 이 더해져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학 비나 학자금 대출 상환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최대 3만5000달러까지는 은퇴 계좌 Roth IRA로 전환이 가능해, 자 녀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자산 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인출 시 교육 목적이 아니라면 세금과 10%의 페널 티가 부과된다.

2024년 말 기준, 전국에는 약 1700만 개의 529계좌가 있으며 예치금은 총 5250억 달러로 나타났다. 계좌당 평균 잔액은 3만1000달러에 달한다.

모리스 대표는 "보너스 지급이 적은 금액이라도 저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아이가 어릴 때부터 529계좌에 정기적 으로 납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 법이라고 조언한다.

전통의 '중앙학생기자' 모집

중·고등학생…6월8일 마감 기사 작성, 문장·사고력 향상

전통을 자랑하는 중앙일보 학생기 자(Joong Ang Student Reporter: JSR)를 모집합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2025년 가을학 기에 학생기자(고등학생 34기, 중학 생 16기)로 활동하게 됩니다.

학생기자들은 커뮤니티 및 학교, 자신이 속한 봉사단체의 활동 소식 등 다양한 이슈와 주제의 기사를 작 성하면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 고력을 키우게 됩니다.

아울러 대입을 위한 과외활동 평 가에도 유리합니다. 2009년 시작된 학생기자는 중앙일보 교육연구소 의 저널리즘 전문 인력이 관리하고 지도합니다.

학생기자들이 작성하는 기사는 심사를 거쳐 중앙일보의 다양한 매 체 (신문 지면, 교육포털 웹사이트,

영어뉴스 웹사이트)에 게재됩니다. 프로그램의 모든 과정은 온라인 으로 진행돼 타주는 물론 한국 등

해외에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활동 기간: 2025년 7월~12월 (6개 월간)

▶지원대상: 중·고생 (2025년 가을 신학년 기준)

▶지원서류 제출: jstudentboard@ gmail.com

• 신입: 지원서, 사진

• 기존: 지원서

•에디터: 지원서, 추천서 ▶지원링크

· 고등부: https://bit.ly/ KD34thJSR

· 중등부: https://bit.ly/ KD16thJJSR

▶신청마감: 6월 8일(일)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6월 14일 (토) 오후 2시(서부시간)

▶문의: 중앙일보 교육연구소 (213) 368-2577

IL, 2년제에서 4년제 대학 편입 쉽지 않다

주의회 지원 프로그램 도입 추진

일리노이 주가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대학 편입 졸업률을 나타내고 있지만 상당수는 편입을 망설이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 학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4년 제 대학에 입학해 필요한 학점을 따면 되지만 많은 학생들을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해 학점을 확보한 뒤 4년 제 대학으로 편입하는 2+2 방식을 택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가 4 년제 대학에 비해 ⅓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리노이 주의 경우 이런 방식 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다. 지난 2020년 조사 결과 커 뮤니티 칼리지에서 4년제 대학으로 편 입한 일리노이 대학생이 6년내 학사 학 위를 받는 비율은 54%로 집계됐다. 이 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하지만 이는 4년제 대학으로 편입에 성공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수치로 당 초 편입을 계획하고 있다가 이를 포기 하는 학생들의 숫자 역시 적지 않은 것 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일리노이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한 학생 중 79%가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을 원했 지만 전체 입학생의 35%만이 실제로 편입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편입에 성공한 학생들 중에서 는 고소득층 가정 학생이 44%로 많았 다. 반면 저소득층 가정 학생은 28%만 이 편입을 했다. 특히 흑인과 라티노 학 생들은 전체 커뮤니티 칼리지 재학생 의 44%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편입률 은 31%에 그쳤다.

이에 따라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을 보다 원할하게 만드는 지원책이 필요 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일리노이 주의회에는 특정 커 뮤니티 칼리지에 입학할 경우 편입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편입시 필요한 학비를 제공하는 법안이 상정 됐다. 아울러 졸업 후 취업이 쉬운 일 부 학위 프로그램의 경우 커뮤니티 칼 리지에서도 학사 학위를 제공할 수 있 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

1면 '전액 지원 박사 과정'에서 이어집니다

#유펜 교육학(펜실베이니아)=유펜 교 육대학원은 전액 장학금을 제공한다. 정규 학생으로 등록하는 경우 4년간의 수업료 및 기타 비용이 포함된다. 추가 여름 학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밴더빌트대 특수교육학(테네시)=피 바디 교육 및 인간발달대학의 특수교 가 보장된다.

연구비에는 전액 등록금, '경쟁력 있 는' 월 생활비, 4년간의 건강 보험이 포 함된다. 연구 분야로는 저발병 및 고발 병장애, 유아교육이었다.

#MIT 경영학(매사추세츠)=MIT의 슬 론 경영대학원에서 경제사회학, 조직 학, 회계학, 정보 기술 등 다양한 분야 를공부할수있다.

#라이스 경영학(텍사스)=라이스 (Rice)대 존스 경영대학원은 입학 시 전 액 재정 지원을 받는다.

#아이오와 주립 경영학=아이오와 주 립대 티피 경영대학은 회계, 경제학, 비 즈니스 분석, 경영학, 재무, 마케팅 분 야에서 박사 과정이 있다. 대학 측은 '거의 모든 입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뉴욕 주립 빙엄턴 경영학=뉴욕 주립 (SUNY) 빙엄턴대 경영대학원의 경영 학 박사 과정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은 최대 4년까지 매년 교육 또는 연구 조교 자격을 취득한다.

#존스홉킨스 간호학(메릴랜드)=존스 홉킨스대간호대학은정규박사과정학 생에게 3년간의 전액 장학금을 제공한

다. 목표는 간호실무 및 의료서비스제 공의 이론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버지니아 주립 간호학=버지니아 주 립대 간호학 박사 과정 학생은 4년간의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예일 간호학(코네티컷)= 전액 장학 금, 4년간의 월 생활비, 수업료 지원,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박사 과 정 신입생은 학생의 학문적 관심사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전분 분야와 활 발한 연구를 수행하는 지도 교수와 연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생물학(매사 추세츠)='TH 챈 공중보건대학원'은 질 병 예방 및 치료 전문 지식 제공을 목표 로 공중 보건 생물학 박사 학위 과정이 개설돼 있다. 전액 지원되며, 만족스러 은 학업 성취를 유지하면 5년간 장학금,

수업료, 건강 보험이 제공된다. 유학 생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말라리아, 악, 당뇨병, 신장 질환 등의 질병 연구 를 진행하고 있다.

#코넬 화학공학(뉴욕)=코넬대 화학 공학 박사 과정에서는 모든 학생에 수 업료 전액 면제, 건강 보험, 생활비를 지원한다. 9개월 동안 전액 생활비가 지급되며 여름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 하다. 입학 사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은 고려되지 않으며, 오로지 학업 성취도 만고려된다.

#듀크대 재료 과학 및 공학(노스캐롤라 이나)=듀크대에서 재료과학 및 공학을 전공하는 박사 과정생은 첫 5년간 등록 금 전액과 12개월 생활비를 지원 받는

#미시간 앤아버 공학=미시간 주립 앤

아버 캠퍼스의 공학 박사에는 항공 우 주공학, 생체 의공학, 고분자 과학/공 학, 로봇공학 등 다양한 전공을 선택할 수있다.

#브라운 컴퓨터 사이언스(로드아일랜 드)='학위 취득 기간 동안 전액 재정 지 원'을받을수있다.

#조지타운 컴퓨터 사이언스(DC)=워 싱턴 DC 본교의 수업료를 포함한 재정 지원 및 조교직을 제공하며, 첫 5년간 장학금과 건강 보험이 포함된다. 다만 여름 방학 동안의 지원은 보장되지 않

#워싱턴 세인트루이스 컴퓨터 사이언 스(미주리)=컴퓨터 사이언스/컴퓨터 엔지니어링 박사 과정은 수업료 전액과 건강 보험을 받는다.

장병희 객원기자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져 치료경력

White Oak **T: 412 681 8505**

백내장 레이저 수술

ⓒ 진료과목

Cataract Laser Surger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안구 건조중 치료

Dry Eyes Therapy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mark>갂</mark>종 보험 적용 됩니다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Korean Dail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1985 Lincoln Way Suite #15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시민권 /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dceyeclinic@yahoo.com

- 투자이민 (EB-5) - NIW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상담 및 신분 변경



₹ ←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 취업이민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 간호사(RN)



646-256-9156(Kor) | **212-739-0843**(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박태균의 **역사와 비평** | 남베트남 패망 50년을 맞으며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서 제대로 배우고 있나

카(Edward H. Carr)는 『역사란 무엇 인가』라는 역저를 통해 '역사는 과거 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했 다. 역사가들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 을 토대로 역사를 구성한다. 그렇다면 과거에만 천착하면 되지, 왜 현재와 끊 임없이 대화해야 하는 것인가?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말에는 몇 가지 중요 한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과거와 현재는 어떻게 대화하는가?

첫째로 현재의 관점에서 역사서술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유교적 가치가 중심이었던 사회에서는 유학의 정통을 잇고 있는 기자조선이 중요했 지만, 민족국가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고조선 중심으로 역사서술이 바뀌었 다. 모든 과거의 사실들이 다 역사가 아 니다. 시대에 따라서 어떤 과거 사실들 은 역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

둘째로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진단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경제학적·정치학적, 그리고 사회 학적 접근이 모두 중요하지만, 역사학 적 방법은 사회과학과는 달리 장기적 으로 문제에 접근한다. 금융위기의 경 우 짧게는 발전국가의 시대, 길게는 식 민지 시대로부터 위기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역사는 현재를 이해하는 열쇠 가된다.

셋째로 역사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 에 필요한 교훈을 얻는다는 점이다. 역 사가 반복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역 사학자들은 거의 없지만 인간이 역사 를 만들기에, 유사한 패턴의 행동이 나 올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과거에 일어났던 인간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과거의 실수나 문 제를 적절히 파악하면 미래에 같은 실 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진주만과 9·11의 만남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 발간된 『전 쟁의 문화』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로 해 석할 수 있는 역사의 특징을 잘 보여주 고 있다. 이 책의 저자 다우어(John W. Dower)는 일본 근대사 연구자이다. 문 서와 함께 시각자료를 잘 이용하는 연 구자이며, 개인적으로는 2007년 다우 어로부터 한국 근현대사의 사진들을 이용한 공동연구 진행을 제안받기도 했었다.



남베트남 패망 하루 전인 1975년 4월 29일 사이공 미 CIA 직원 숙소에서 미국인들과 남베트남인들이 탈출 헬기를 타려고 옥상으로 오르고 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과거 인간의 행동 패턴에 미래 예측 시사점 미국은 80년 전 진주만, 2001년 9·11, 50년 전 베트남에서 똑같은 실수 인종·문화적 편견, 무책임한 관료주의와 비밀주의, 트럼프 2기도 답습 친위 쿠데타 모면한 한국, 미국과 무역협상, 공정한 선거 관리 잘 되나

이 책은 80년 전의 태평양 전쟁과 2001년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 사이에 서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시도했다. 태 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한 사실에 는 변함이 없지만, 그는 이 두 사건에서 미국이 유사한 실수를 했으며, 유사한 대응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9·11 이 후 그라운드 제로에 선 성조기를 보면 서 1945년 이오지마에 세운 성조기를 되돌아본 것이다.

그가 우선 주목한 것은 지피지기(知 彼知己)를 강조한 일본 연합함대 사령 관 이소로쿠(山本五十六)가 했던 말이 었다. '적이 오만하게도 태만했던 덕분 에 일본의 기습은 성공했다.' '진주만 의 성공은 그들이 우리를 얕잡아 봤기 때문이다. '위험은 무시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온다'와 '작은 적이라고 무시하지 마라'라는 말은 정말로 중요하다.'

책임지지 않는 관료주의

두 번째로 주목했던 것은 책임지지 않는 관료주의 문화였다. 진주만 사건 과 9·11 테러 조사보고서에서는 공통점 이 있었다. "불의의 사건이 정부에 일어

나는 경우, 그것은 보통 복잡하고 여러 차원에 걸쳐있는 관료제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는 책임의 유기 도 포함되지만, 책임이 너무 부실하게 규정되거나 모호하게 위임되어 있으면 어떤 조치도 소용이 없다."

다우어에 의하면 9·11의 시점에서 오 만했던 미국 정부는 80년 전 진주만 사 건 당시의 인종적 오만과 문화적 자만 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 그리고 승리에 취해 집단사고, 성전(聖戰), 체리피킹 (유리한 근거만 선택), 임시변통, 비밀 주의 등이 지속되었다. 집단이 사고하 는 것에 대해 모두가 비판 없이 따라가 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을 받아들 이려 하며, 자신의 행위를 성스럽게 포 장했던 양태들 반성하지 않았다는 것 이다.

50년 전인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 이 패망했다. 베트남 전쟁에서도 미국 은 동일한 실수를 했다. 무엇보다도 미 국은 상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상대 국민이 왜 미국이 지원하는 정부를 반 대했는지, 적들이 어떤 전술을 쓰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이 사후 평가

였다. 그렇기에 미국은 태평양 전쟁과 한국전쟁에서 성공적이지 못했던 전략 폭격을 퍼부었다. 베트남도, 세르비아 도, 이라크도, 아프가니스탄도 폭격으 로 인해 항복하지 않았다.

[위키피디아]

사이공에서 무역전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인류가 전혀 반성 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1970년대를 통한 반전운동과 인권외교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 속에서 나온 결과였다. 유 럽에서도 68혁명이 있었다. 인간만이 동물도 인공지능(AI)도 하지 못하는 과거의 실수에 대한 성찰을 통해 현재 와 미래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믿 었건만 현실은 결코 그러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그러나 그때 뿐이었다.

9·11이라는 최악의 테러를 겪기 이전 에 인류는 이미 걸프전, 유고슬라비아 내전, 르완다 학살을 겪었고, '블랙 호 크 다운'으로 알려진 소말리아 사태를 경험했다. 1941년을 반성하면서 언급되 었던 인종적 편견이나 문화적 오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테러와의 전쟁 으로 개입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서는 결국 어떤 진보도 얻지 못했다. 오 히려 이슬람국가의 탄생, 탈레반의 승 리라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

지피지기의 부재, 무책임한 관료주 의, 집단사고, 체리피킹, 그리고 비밀주 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듯하다. 트

럼프 2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호무역 정책 속에서도 이런 현상이 그대로 재 현되고 있는 것 같다.

관세율의 적용이 체리피킹을 통해 잘못된 통계를 인용했을 가능성도 제 기되고 있고, 미국의 산업구조를 잘못 읽어 며칠 만에 관세 유예를 선언하기

작은 국가가 아니라 세계질서를 움직 이는 미국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 은 전 세계를 점점 더 무정부 상태로 몰 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 쩌면 2022년 제77차 유엔총회에서 선 언했던 것처럼 가장 위험한 시대에 접 어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국제법도 국 제기구도 무력화되고 있는 느낌을 받 는다.

한국역시 50년 전에 끝난 베트남 전 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남베트남 정부가 패망하자 한국 정부는 특별선 언을 발표했다. 분열하면 안 된다. 공산 국과의 협정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동맹국에만 의지하면 안 된다. 미 국이 남베트남을 배신했고, 남북 베트 남 사이의 평화협정은 지켜지지 않았 으며, 남베트남에서의 적은 북베트남 이 아니라 남베트남 자신이었다는 것 이다.

제대로 교훈을 얻지 못한 한국 사회

한국 정부가 제시한 교훈들은 중요 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진정 얻어야 할 적절한 교훈을 놓친 것도 적지 않았 다. 우선 베트남에서 사망하거나 다치 고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군인들 에게 사과해야 했다. 그리고 베트남에 서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으 며, 결과적으로 남베트남 정부를 지킨 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 반성해야 했다. 그리고 남베트남 과 달리 국민이 지키고 싶은 국가를 만 들겠다고 했어야 했다.

베트남 전쟁에서의 경험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키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보다는 긴급조치 를 선언하기도 했다.

또한 50년 전의 경험에 대한 논의는 현재 한국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또 다른 기제가 되고 있다. 아직도 참전군 인에 대한 보상, 과거사 문제 등 해결되 지 않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베트남 전 쟁 시기에 있었던 친위 쿠데타와 긴급 조치는 2024년 재현될 수도 있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매 매

디씨 NW 건물 \$2.2M 그로서리 스토어 1층, 2, 3층 아파트 **센터빌 타운하우스 \$60만불** 방4+ 화장실3.5, 랜트 수익 \$2,900 레스톤 타운하우스 \$62만불 방3 + 화장실2.5, 랜트 수익 \$3,000 스태포드 타운하우스 \$42만불 방3 + 화장실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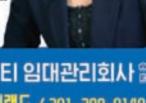
페어팩스 타운하우스 \$80만불 방3 + 화장실3.5, 호수뷰, 차고 2, 랜트 \$3,600

렌 트 애쉬번 웨어하우스 \$4,800 3800sqft, 큰 오픈 스페이스, 화장실 2개, Loading dock 애쉬번 타운하우스 \$3,600 방3 + 화장실3,차고 2, 입주 6월 **챈틸리 타운하우스 \$3,400** 방3 + 화3,5,차고 2, 입주 4월초

우드브리지 \$3,200 방3 + 화장실3.5, 차고 2, 입주 3월초 맥클린 로톤다 콘도 방2 + 화장실 2, 즉시 입주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帅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 D.C., 메릴랜드 / 301-399-0140 HXILIOF / 703-863-0321



대입 들여다보기

신입생 등록률 절벽, 대학 생존 위협 AI와 맞춤형 마케팅이 새로운 해법

대학은 인생에서 재정적으로 가장 중 요한 투자이자, 감정적인 투자이기도 하다. 쉽게 말해 입시는 학생들에게 '영 혼을 갈아 넣는' 작업이라는 뜻이다.

전국 대학 카운슬러 협회(NACAC) 에 따르면 지원자 가운데 52%는 대학 지원 과정이 학업적으로 고등학교 내 내 해온 그 어떤 일보다 스트레스가 컸 다고 답변했다.

지원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대학 을 찾고, 대학에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 해 에세이를 쓰는 것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길을 선택 한다.

특히 지금의 Z세대(Gen Z) 학생들 은 고도로 개인에게 맞춤화된 알고리 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대학 입시 에서도 비슷한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 으로 예상된다. Z세대는 보통 1997년 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말

한다. 이들은 인터넷 문서이든 동영상 이든 개인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맞춤 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알고리즘의 최대 수혜자 세대이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대학은 학생들 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 개인화된 마케 팅과 입시 경험을 제공하지 못한다. 대 학들은 더욱 맞춤화된 접근 방식의 필 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지원자 대비 입학 사정관의 숫자를 고려하면 이것 을달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먼저 현실을 보자.

대학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은 너무 많고 입학 사정관은 절대적으 로 부족하다. 지원자들은 대학 원서에 약 60시간에서 200시간에 달할 만큼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지만, 대학이 1차 심사에서 원서를 검토하는 데는 90초 도채 걸리지 않는다.

지원 과정에서 학생이 대학들에 대 해 조사하는 것만 해도 20시간에서 40

시간 정도 걸릴 수 있지만, 대학은 잠재 적인 신입생을 찾기 위해 그 수준의 투 자를 거의 하지 않는다.

대신 대학의 접근 방식은 종종 일반 적인 마케팅 캠페인으로 제한된다. 사 실 이것을 대학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다. 평균적으로 입학 사정관 한 명이 원서를 읽는 학생들의 숫자는 49명에 서 160명에 달해, 입학 사정관들 사이 에 번아웃이 흔하다. 결과적으로 대학 들의 입학사무처는 50%의 이직률을보 이고 있으며, 전체 직원을 그대로 유지 한다고 보고한 곳은 3%에 불과하다.

또한 입학 사정관 자리를 채우는 것 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가운데 지원 자 수는 늘어나면서 입학사무처들은 등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평범하고 일반적인 홍보 전략에 의존하는 경우 가많다.

지원자 가운데 46%는 지난해 입학 사정관과 상호교류를 한 경험이 없다

고 보고했으며, 64%는 대학에서 받는 정보가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되지 않 는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대학들로부터 매년 평균 1300건의 이메일과 우편물 을 받는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접근이 해당 대학에 원서를 제출할 만큼 학생 에게 동기를 부여한다고 생각하는 비 율은 14%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몇 년간 대학들은 '등록률 절 벽'이라고 불릴 만큼 학생 등록률이 감 소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난을 겪는 일부 대학들은 놀라운 속도로 학교 문을 닫고 있다.

필라델피아 연방 준비은행(FRB)은 최근 학생 등록률 등의 지표를 사용해 서 대학들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예 측모델을 만들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80개 대학 이 추가로 문을 닫아 10만명이 넘는 학 생과 2만880명의 교직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잠재적 으로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럼 이런 암울한 예상을 타개하고 생존하기 위해 대학들은 어 떻게 해야 할까?

Z세대 학생들은 이미 인공지능(AI) 을 사용하는 비율이 87.5%에 달하며, 58.2%는 매월 AI를 사용한다. 학생들 이 SNS플랫폼에서 맞춤형 추천과 정 보를 얻을 수 있다면 대학들도 학생들 을 대상으로 개인화된 마케팅과 지원 에 신경써야한다.

예를 들어 대학에 등록할 때 가장 큰 장벽이 되는 것 중 하나는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이다. 아울러 재정보조 신청 절차의 복잡성도 등록률을 감소시키 는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런 이유로 대 학들은 개인의 필요에 맞는 정보를 학 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 며 이는 결국 교육기관의 생존과도 직 결돼 있다.

에듀 포스팅 수 변 원장 / 보스턴 에듀케이션

'리더십'은 직책이 아니라 역량 좋은 리더 관계·소통에서 시작

자녀들의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빠 짐없이 듣게 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 로 '리더십'의 중요성이다. 그러나 막상 리더십이라고 하면 '직책'이나 '타이틀' 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 그 외에는 어떻 게 준비해야 할지 막연함을 느끼는 경 우가 많다.

일전에 아이비리그 대학의 입학 사 정관은 "큰 프로젝트의 리더는 기업의 CEO처럼 전체 방향을 설정하고 구성 원들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리더십이 매우큰 인상을 줄수 있다"라 고 말한 적이 있다. 실제로 대학에서 말 하는 리더십이란 단순히 타이틀을 보 유하는 것이 아니라, 팀 선체들 이끌고, 방향성을 제시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 갈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능력을 의

십'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제로 어떻 게 실천할 수 있을지 여름방학 동안 실 질적인 리더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핵 심 내용을 알아보자.

▶대학이 원하는 리더십

대학은 리더십을 통해 학생의 프로 파일이 더욱 돋보이고, 긍정적인 영향 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를 평가한다. 리더십은 단지 직책을 맡 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소속된 학교나 지역사회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주 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는지에 더욱 주목한다.

입학 사정관은 학생이 학업이든, 예 술이든, 운동이든, 지역사회 봉사든 특 정 분야에 진정한 열정을 가지고 꾸준 히 활동해온 흔적을 리더십의 자질로 판단한다. 결국 리더십은 학생이 대학 캠퍼스에서 어떤 커뮤니티 기여들 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 준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 입시에 필요한 '리더 게 평가하고 돋보이게 하며 긍정적인 다. 변화를 이끌고 선한 영향력을 불어넣 으며 영감을 불어넣을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학생의 이미지로 생각한다.

리더십의 정의를 단순히 클럽이나

학교 밖의 활동에서 직함을 유지하는 것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화장이란타 이틀도 중요하지만, 학교 급우 또는 학 다. 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리더십 개발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

우선 리더가 되려면 대학 생활은 물 론이며 그 이후에 더 도움이 될 방범 위 한 소프트 스킬을 개발해야 한다. 자녀 가 성격상 내성적이라고 리더십과 거리 가 멀다고 생각하고 포기한 리더십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 필요한 요소들 을 알아보자.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이 "정말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리더는 학업, 과외활동, 개인 프로젝 트, 리서치 등 다양한 활동들 사이에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배분하고 조율할 줄 알아야 한다. 계획한 일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유연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

2.소통과 경청: 리더는 앞으로의 계 획과 목표를 투명하게 전달하고 표현 하며 다른 동료의 의견에 귀 기울여 그 들의 관점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기 때 문에 명확한 의사소통과 적극적인 경 청의 자세가 단체나 클럽을 운영하는 데매우중요하다

3.관계 구축: 동료와의 친분은 물론 이며 학교 교사, 멘토와의 탄탄한 관계 를 구축하는 것이 또 하나의 리더 모습 이다. 이러한 탄탄한 관계 유지는 단체 1.시간 관리: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 에 대한 지원과 많은 조언과 더욱 성장 할기회를잡을 수있다.

또한 나아가서는 학생의 추천서에도 리더십은 학생의 프로파일을 더 높 하지만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 큰 영향을 미치며 대학 입학 시큰 도움 이될수있다.

> 4.적응력: 단체나 클럽을 운영하거나 참여하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 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어 려움을 헤쳐나가는 데는 상황에 적응

하는 능력은 리더의 핵심 자질이다.

5.협상과 협력: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융합하는 협상력과 포용력도 중요하다.

자녀가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해서 리더십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필요 는 없다. 오히려 리더십은 성격보다는 책임감, 소통 능력, 문제 해결력, 팀워크 등 다양한 '소프트 스킬'을 통해 만들 어지는 역량이다.

여름방학이나 학기 중 다양한 활동 을 통해 이러한 역량을 차근차근 쌓아 간다면, 자녀의 대학 입시에도 큰 힘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셜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IR CLEANER AND HUMIDIFIER INDOOR AIR QUALITY PROBLEMS **FURNACES & AIR HANDLERS NEW FURNACE INSTALLATION FURNACE REPAIR SERVICE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AC INSTALLATION**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나이도 잊고 휴일도 잊은 '홀드왕' 김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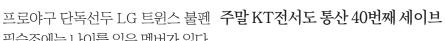
버틀러 분전에도…97-102 패배 미네소타 에드워즈·랜들 '펄펄'

필승조에는 나이를 잊은 멤버가 있다. 1985년생 김진성(40)이다. 2004년 함께 프로에 데뷔한 박석민·김재호·장원준· 정우람 등 동기 대부분이 피치를 떠났 지만, 그는 여전한 구위로 LG의 상승 세에 힘을 보탠다.

김진성은 성적으로 자신의 건재함을 증명한다. 올 시즌 13홀드(19일 기준) 로이 부문 1위다. KIA 타이거즈 조상 우(31)가 12홀드, 롯데 자이언츠 정철 원(26)이 11홀드로 김진성을 뒤쫓는다. 같은 팀 박명근(21)이 9홀드로 4위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건 그와 경쟁자의 나이 차다. 나이 차가 가장 적은 조상우 조차 그와 9살 차다. 정철원과 박명근 의 경우나이로는 조카뻘이다.

후배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자 신의 진가를 김진성은 지난 18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KT 위즈전에서 여 실히 보여줬다. LG가 5-1로 앞선 8회 초, 성동현이 2사 후 KT 안현민에게 좌 중간 안타를 맞은 데 이어 장성우에게 볼넷을 내줬다. LG 염경엽 감독은 김 진성을 마운드로 올렸다. 멜 로하스 주 니어를 1루수 땅볼로 잡은 그는 9회까

프로야구 선두 LG의 40세 필승조 조카뻘 제치고 올 시즌 13홀드 1위





지난 18일 아들 리호(왼쪽), 민찬 군과 함께 경기장에 나온 김진성. 이날 두 아들은 시구자로 나섰다. 그는 마흔살의 나이에도 굳건히 LG 트윈스 불펜을 책임 지고 있다. 올 시즌 13홀드로 이 부문 1위. 야구가 없는 월요일에도 훈련을 거르지 않는 "노력"이 롱런의 비결이다.

지 삼자범퇴로 처리해 승리를 지켰다. 세이브였다.

지난 18일 아들 리호(왼쪽), 민찬 군과 함께 경기장에 나온 김진성, 이날 두 아 들은 시구자로 나섰다. 그는 마흔살의 나이에도 굳건히 LG 트윈스 불펜을 책 임지고 있다. 올 시즌 13홀드로 이 부문 1위. 야구가 없는 월요일에도 훈련을 거 르지 않는 "노력"이 롱런의 비결이다. 고봉준기자

김진성은 마운드에서 다양한 구종을

구사하지 않는다. 시속 140km대 초반 직 개인 통산 40번째 세이브이자 시즌 첫 구와 120km대 포크볼뿐이다. 압도적으 로 빠르지 않아도 제구가 좋고 포크볼 의 낙차가 커 쉽게 건드리지 못한다. 마 흔 살 투수가 위력적인 구위를 유지하 는 비결. 답은 간단했다. "노력." 그는 "(공) 스피드를 유지하려고 애쓴다. '직 구시속이 140km 아래로 떨어지면 은퇴 한다'는 마음으로 노력한다"고 답했다. 이어 "노력에 다른 게 없다. 천부적 재 능이 없는 만큼 남보다 더 많이 훈련하 고 운동한다. 100번, 200번 훈련하면 언

는 게 있다. 또 슬럼프가 왔을 때도 빨 리 극복하는 밑거름이기도 하다"고 말

김진성은 프로야구 휴일인 월요일에도 훈련을 거르지 않는다. 오래 던지려면 그만큼 (긴 시간) 보강 운동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그노하우를 후배에게 알 려줄 만큼 이제는 자신 있다. 그는 "올 해 데뷔한 김영우는 KBO리그에서도 손에 꼽는 빠른 공을 던진다. 몸이 강 속구를 견디려면 보강 운동이 꼭 필요 고봉준 기자



"오타니처럼 투타겸업" 광주일고 김성준 17억에 텍사스 입단

투타 겸업을 꿈꾸는 광주일고 투수 겸 내야수 김성준(18)이 메이저리그 (MLB) 텍사스 레인저스에 입단했다. 텍사스 구단은 19일(한국시간) "김성 준을 국제 자유계약선수로 영입했다" 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입단 기자회견 에서 김성준은 "명문 텍사스에서 의미 있는 도전을 시작할 수 있게 돼 영광"이 라며 "성실한 노력으로 반드시 빅리그 무대에 올라 구단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겠다. 꿈을 이루기 위해 더 열심 히 뛰겠다"고 말했다. 매니지먼트사가 공개한 입단 계약금은 120만 달러(약 16억8000만원)다. 한국선수가고교졸 업후 MLB 구단에 입단하면서 계약금 을 100만 달러 이상 받는 건 2017년 배 지환(피츠버그 파이리츠·125만 달러) 이후8년 만이다.

김성준은 최고 시속 154km의 강속구를 던지는 오른손 투수이자 장타력과 빠 른 발을 겸비한 오른손 타자다. 유격수 와 3루수 수비도 소화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일찌감치 내년 시즌 KBO 신인드래프트 전체 1순위 후보로 꼽혔 다. 류현진(한화 이글스)이 2013년 빅리 그에 진출해 크게 성공한 뒤, 고교야구 유망주들은 '미국 직행'보다 'KBO리 그경험 후 빅리그도전'쪽을 선택하는 추세다. 그러나 김성준은 투타 겸업 지 원을 약속한 텍사스에서 '제2의 오타 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신화 에 도전하는 쪽을 택했다.

해밀턴 와이스 텍사스 국제 스카우트 이사는 "김성준은 세계적인 선수로 성 장할 재능을 보여줬고, 인성까지 훌륭 하다. 유격수 수비와 타격에서 깊은 인 상을 받았다. 마운드에서의 능력도 뛰 어났다"며 "구단은 그를 투타 겸업 선 수로 육성하겠다는 확고한 계획을 세 웠다. 그는 그 도전에 필요한 자질을 충 분히 갖췄다"고 강조했다.

배영은 기자

호날두 아들 아니랄까봐…

포르투갈 U-15 대표팀서 데뷔골 아빠와 같은 등번호 7번 달고 2골 공중돌기 '호우세리머니' 도선봬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0·알나스르) 장 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주니어(14)가 포르투갈 연령별 축구대표팀에서 국가 대표 데뷔골을 터뜨렸다. 포르투갈 15 세 이하(U-15) 대표인 호날두 주니어는 19일(한국시간)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블라트코 마르코비치 유소년 축구대 회 결승전에서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2 골을 터뜨려 3-2승리를 이끌었다.

스 왼쪽 좁은 각도에서 왼발슛을 시도 로 연결됐다. 아버지와 같은 등 번호(7 번)를 단 호날두 주니어는 코너 플래



호날두 주니어는 전반 13분 페널티 박 11일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막상스 라크루아와 함께 활약하는 모습. [로이터]

했고, 공은 골대 모서리에 맞고 선제골 뒤 두 팔을 쭉 뻗는 이른바 '호우 세리 선 전반 43분에도 호날두 주니어는 문 머니'(실제로는 "호우"가 아니라 "시우 전으로 영리하게 들어가 헤딩슛으로 (Siu)"라고 외침)를 선보였다. 뒤따라 추가골을 뽑았다. 지난 14일 일본전에 그쪽으로 달려가 공중에서 반 바퀴 돈 온 동료들도 이를 따라 했다. 1-1로 맞 서 국가대표로 데뷔한 그는 A매치(국

가대표팀 경기) 136골에 빛나는 호날 두의 아들답게 중요한 순간에 한 방을 터트리는 클러치 능력을 뽐냈다.

사우디아라비아 알나스르 유소년팀 소속인 호날두 주니어에 대해 맨체스 터 유나이티드·토트넘 등 다수의 유럽 클럽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 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아버지의 후광 을 등에 업은 그에 대해 세계 축구 팬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이번 대회 득점 영상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퍼졌 다. 포르투갈축구협회는 호날두 부자 가 나란히 '호우세리머니'를 하는 합성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호날두도 아들 득점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 하며 "크리스티아누 주니어의 첫 번째 두 차례 '시우(SIUUUU, Yes를 뜻하 는 Si의 강조)"라고 적었다.

5남매 중 장남인 호날두 주니어는 2010 년생이다. 호날두가 대리모를 통해 얻 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박린 기자

박&우 합동법률 사무소 (Park & Woo,P.C.)가 새로이 출범하여 이에 고객 여러분께 알립니다.

믿음과 전문성, 당신 곁에 있는 법률 파트너

박&우 합동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35년 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합니다. 법률 문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상담, 박&우와 함께 하세요!

'동법률 나무소 Park & Woo, P.C.

그 동안 저희가 일했던 문&박 합동법률사무소를 믿고 여러 사안들을 맡겨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박상근 변호사

- •서울 법대, 대학원 졸업
- •George Washington 법대 법학 석사 • Fairfax County 인권위원회 부의장 (전)
- •버지니아 주의회 이민 난민 정책위원 (전)
- •북미주 CBMC 총연합회 회장 (전) •VA, MD, DC 변호사 자격
- 민사, 상사, 형사, 회사법, 부동산, 상속, 유언, 이민 신청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합동법률 사무소 Park & Woo, P.C.

(703)941-7395

4308 Evergreen Lane, Suite G, Annandale, VA 22003 | E-mail: info@parkwoolaw.com



우시영 변호사

- •Georgetown 법대 법학 석사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정회원
- •주요 일간지 이민법률 상담 변호사 •아태법률구조센터(APALRC) 법률 통역 (전)
- •VA, NY 변호사 자격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World Bankcard Service가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차이와스니다



◢ 새로운 크래딧 카드 기계:

결제 중 끊김과 오랜 결제 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보장합니다.

- 1 서로운 POS 시스템:
 효율적이고 신속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가편한 유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향상시킨니다
- 3 더 낮은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사장님들을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World Bankcard Service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703-225-5500,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orld Bankcard Service





2001년부터 애난데일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척추신경클리닉을 은퇴 관계로 내놓습니다.

의욕적인 마인드로 운영하실 척추신경 닥터에게

레이저, X-Ray 및 시설 일체를 포함해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양도하고자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EL: 571-212-3082

편한나라 척추신경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 이력서 보내실 곳: carefreeland@gmail.com

한국 고전 가구 (오리지날)

35년 이상 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 고전 가구40여점을

은퇴로 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 오리지널 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문의: Yong Choi 703-626-7370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약을 경으땐 건강과 행복이 就MI 社中品川다"

25년 융자 경력 제인 최 융자 \$비교해 보십시요!\$

매입융자/재융자

최저이자율 보장 융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융자/2nd 융자

긴급융자(차압 또는 급전). 노 인컴 융자, 외국인 융자, 상업용 융자 등 모든 융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 loan@gmail.co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П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함께 성실히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모집분야

메케닉

영주권 스폰서 가능! 좋은 대우!

연락처

410-446-9981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간병사 코디네이터

Hanmi Homehealth (이전 CSC Home Care)

Springfield Office 에서 간병사 Schedule 관리 하고 Client Follow Up 하실 분 구합니다.

약간의 이중언어. 컴퓨터 관리 필요 합니다.

Please send Resume to KDLHJL@gmail.com

매매가격: \$59,000

-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 •월수입: \$5,500 ~ 6,500
- •업종: 캔디 배달(VA, MD)
-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세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자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대형믹서기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성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5월 20일 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게재중지를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엘리컷시티까페에서 금/토/일주방에서 뒷일 하실분 구합니다. 443-386-051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인사,자산,영업,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401K,유급병가/휴가,보험등 자격요권:합법적근무조건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 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젼트에 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패니 쉬)가능한유,무경험자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엘리콧시티 혜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주방,쿡(숙소제공가능)

찬모/웨이츄레스/웨이터 부페 담당 웨이츄레스 ▶443-420-3096

엘리콧시티자동차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에서 운전기사

를구합니다. 엘리컷시티, 하노버 메릴랜드 443-621-2625

메릴랜드주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셔 니스트와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가능/월요일-금요일정규직/ 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 야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 com으로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 -경험많은 Handyman - 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관리자*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스패니쉬)가능한유,무경험자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락빌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주방보조(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조건의연봉과베네핏

-유급휴일과유급병가 **▶**443-828-777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마사지사약간명, 리셉션니스트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세탁소/이미용/기타

엘리컷시티픽업스토어카운터구함 풀/파타임, 베깅만하실분, 영어가능하신분 410-926-3200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앤드류공군기지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세탁소에서바지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예 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운전면허 VA/MD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교통국업무.

- 카톡ID: jimdong123
-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 ▶571-294-0057

▶410-370-8057

OK택시공항·장거리 최저 염가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게이더스 MD. 바쁜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지역 443-983-1965

싱글/타운방렌트

실버스프링 한아름에서 10분거리에 위치한 조용한단독주택방렌트, 넓은이층방,인터 넷,가구완비, 간단한취사 240-543-6427

글렌버니(UMBC 20분) 방하나, 유포\$500

443-668-2341

메릴랜드저먼타운싱글홈뉴그랜드마트근 처, 욕실딸린 큰방 하나, 보통방 하나, 반지하 방 하나(출입구별도), 가구,인터넷완비 301-538-1438

단독주택이층 큰방/인터넷/가구완비/냉 장고/욕실/주차. 29번과 198번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여성분 240-413-2738

볼티모어 오잉스밀스 좋은동네 타운하우스 2층 방하나 렌트유포 \$600 여성분 환영 443-844-6296

엘리컷시티 롯데에서 10분거리 타운홈 이층방세놓음.

가구완비,교통편리,인터넷유포 443-631-7866

사업체 매매

글렌버니에 새로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메릴랜드자이안트옆 - Sea Food 매매 \$195,000

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부부가능. 좋은장점있음. 571-242-3736

이발소 \$7만5천불판매/하노버매릴랜드 앨리컷시티에서 20분거리 Arundel 공장 근처/최근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미노가 있는 분주한쇼핑센터 리모델링/ 저렴한임 대/30년동안같은위치 301-672-1326 (켄)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매입/현장매입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 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애난데일위치,이민법사무실,I-140파일, 패러리걸(법률보조원) 구합니다.

이력서: Heajinjung@eb3recruit.com

케어피플홈헬스(센터빌&애난데일)에서 Billing Coordinator (한국어, 영어 가능하 신분)구합니다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 러브핸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 (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가능, 컴퓨터사용가
- 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 IRA 혜택제공,
- 유급휴가제공/경력자우대함
- -지원및문의: HR 담당
- ▶703-657-0944 /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센터빌지역덴탈랩CAD/CAM, ZIRCONIA 원스텝 기술자구합니다. 571-229-0387

케어피플홈헬스(에난데일오피스) Billing Coordinator (한국어, 영어 가능하 신분)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홈케어(센터빌)업무팀직원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보험,연금에이젼트 라이센스 있으신분환 영. 정례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무료컨 설팅. 2024년에본인또는가족소득이 \$67,000 미만인경우세금보고무료서비 스안내

703-939-2737

김서규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전공 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skim@skimcpa.com

보험회사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WBS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 모집합니다. 50K/Yr, 유급휴가, 건강보험 문의 및 resume:

▶hr@worldbankcard.net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구합니다. -경력자우대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타임/파트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우대 ▶문의: 571-348-3723

Fairfax 풀/파타임이중언어 사무직유경험 40k-50k 베네핏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여행사버스투어가이드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곳: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애난데일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직원구 함.유경험자우대

회계사, EA라이센스소지자 우대 이력서: hr@yicompany.com

애난데일사무 및 리셉션 직원구함 홈케어또는보험등유경험자우대 이력서: hr@firsthco.com 전화: 571-549-6789

홈케어 에이전시 구인

센터빌,챈틀리지역물리치료병원에서 한국어/영어가능한Receiptionist구함 이력서: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센터빌/챈틀리지역 임플란트전문치과풀/파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우대, Dentrix Plus Full/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애난데일신촌설렁탕에서웨이츄레스 2명 급구합니다.

240-253-3518 Falls Church 서울 프라임에서 같이 일

하실 서버/바텐더를 구합니다. ▶hr@seoulprime.com

애난데일 새로 오픈하는 분식점에서 헬퍼 아 주머님, 카운터 케쉬어 구합니다. 703-401-9879

Dumfries 컨비니언스토어RT 1 & 234 야간근무가능하신분(11PM-7AM) 나이불문, 남자분 환영 703-291-7174/703-774-7443

엘리콧시티 혜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주방,쿡(숙소제공가능) 찬모/웨이츄레스/웨이터 부페 담당 웨이츄레스

▶443-420-3096

버지니아 Fredericksburg 일식당에서 일 하실 히바찌 쉐프, 스시 헬퍼 구합니다. 파타 임/풀타임가능 703-258-4356

패어팩스 HMART근처새로오픈하는일 식집(IZAKAYA)에서호스트,서버,바텐더 구합니다.

703-628-9168 (문자요망)

DC 백악관근처 델리에서 샌드위치싸실분 풀타임M-F(7am-4pm)유경험자 703-489-5105

컨비니언스토어 95&234 Dumfries 남녀불문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703-774-7443

에난데일치맥에서 Server구합니다. 파타 임, 케쉬페이 가능 571-352-4938/ Chimc.va@gmail.com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우대 매니저: 임희상이사

▶571-839-1647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털링점 구인 푸드코트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인터내셔설수퍼마켓 정육부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스프링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필드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lounge.com

진료 과목

•임플란트 •신경치료

•충치치료 •전체/부분 틀니

•교정 ●발치

•일반치과 •미용치과

•잇몸치료 •크라운 •임플란트 틀니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센스 소지자 우대/ 라이센스 교육 가능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2025년 5월 20일 화요일 **중앙일보**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파트타임 ▶571-991-4172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이미용

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이발소에서금,토요일일하실분구합니다. 703-907-9541

첸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구함. 자세한사항은 문자,메세지 다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세탁/얼터레이션

세탁소 픽업스토어 카운터 보실분 경험자우대, DC 전철역옆 240-644-4190

알렉산드리아픽업/카운터, 배깅하실분/ 파/풀타임(문자요망) 703-608-5183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스톨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하실분구함. 알렉산드리아지역 703-328-3064

자동차 /정비/바디샵

엘리곳시티자동차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폴스쳐치 지역자동차정비소에서 메케닉 유경험자구함 571-332-6110

첸틀리자동차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구함. 703-266-1983

mechanics 경험에따라우대함.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 (emissions test 없어도됩 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가게 맡 아하실분환영. 영주권스폰서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구합니다

▶ 703-678-1749

청소/기타구인

센터빌가정집에서 베이비시터구합니다. 화/금/토 저녁 6시 -9시반까지 8세, 9세 아 이들돌봐주실분 201-684-8974

버크 태권도사범님 구합니다. 플타임 \$50K-\$55K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Office 청소하실 분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센터빌) ▶571-591-4455

홈케어(센터빌)업무팀직원구함 유경험자우대이중언어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홈케어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알렉산드리아치맥치킨홀맡아서해주실분 703-473 -6022.

몸이불편하신시니어분들모십니다. -최적의위치·시설 -최고의식사와돌봄 703-980-9890

사인컴퍼니에서일하실성실하고 꼼꼼하신분.유·무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스폰서가능 영어,전기,기계,목공모두가능하신분 240-903-0777

엘리콧시티픽업 풀or파타임유경험자환영9-6pm 410-926-3200

싱글/타운홈렌트

방3,화3.5,2cargarage,긴드라이브 웨이, 주차다수, 콜린파웰초, route 50/66/28/29 2.Lorton 타운홈 \$3,300 방3,화3.5,2car,전부마루,주차다수

1. 센터빌 Fair Crest 타운홈 렌트 \$3.500

SouthCounty 하이,RT95/395/286/123 3. Ashburn 타운홈\$3,500 방3,화3.5,2 car,주차다수,Briar Wood ▶571-239-6054

►5/1-239-6054

센터빌롯데근처타운홈렌트1,800sqft 방3,화3.5,차고1,집전체마루,6월말입주 703-344-6273 센터빌롯데근처타운홈 End Unit 렌트 \$3,000, 방3, 화3.5, 차고2 703-489-6926

Haymarket 타운홈 렌트 End Unit, 66에서 가까움 \$3,900 방4, 화3.5, 차고2 703-489-6926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홈 렌트(옥튼HS) 2100 sqft, 방4, 화3.5, \$3200 470-485-1875

챈틀리새타운 렌트 \$3,600 방3,화 3.5,차고 2,2,300sqft, 교통요지 28/66/50/286, 웨스트필드하이, 웨그 먼,코스코, Dulles airport, Sully station, Chantilly Shopping Center 571-239-6054

▶센터빌타운하우스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싱글홈렌트\$3,500

▶703-231-5572

콘도렌트

애난데일 H 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화1,주차2,완전 리모델링,모든 가전 제품 새것,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헌돈 새 콘도렌트\$3,000 방2, 화2.5, 차고1,이노베이션 메트로역도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 트, 1,600sf, RT267/28, 최고교통요지 571-239-6054

콘도 렌트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703-336-3283

페어팩스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새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콘도렌트 \$1,900 Springfield 아난데일 10분 거리. 방 2, 화장실 1,세탁기, 건조기,나무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파킹 3개충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ਸ਼੍ਰਿ 3⁄11 ਨੂੰਦ, ਪਤ ▶703-477-3114

센터빌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까움, 전용주차장 2대, \$2,200

Mart가까움, 신용² ▶703-477-3114

애난데일콘도. 방1,화1, 새나무마루, 새부엌,새화장실,새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 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1. 옥톤싱글\$3,600, 방5, 화2.5, 차고 2,2.5acre숲속,아름답고조용한 게이트있는집

2. 센터빌 stonegate, 콘도렌트 \$2,100 방2, 화2, 2층 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

방렌트

패어팩스 INOVA 병원뒤 타운하우스지하전 체렌트, 방1/화/부엌/세탁기, 직장인 여자 분환영, 6/15일 이후 입주가능 \$800 703-350-1986

센터빌타운하우스베이스먼트세놓습니다 유포\$1,100

▶301-928-4125

한강뒤싱글홈새로고친반지하방3,욕실2 큰거실입구별도주차넉넉 즉시입주가능 703-395-4380

패어팩스싱글하우스지하전체렌트 GMU에서 3분거리,즉시입주가능 703-658-1117

버크 Hmart 근처 싱글홈 방렌트, 조지메이 슨/노바에서 10분거리, 가구완비, 파킹, 인 터넷 유포 \$800 비흡연자, 여성분 환영 703-939-2737

애난데일메시아장로교회뒤타운홈 2층방하나렌트, 비흡연자환영 703-887-5173

패어팩스 웃슨하이스쿨근처싱글홈지하전 체렌트,조용한동네,워크아웃,큰방1/부 업/욕실/거실/세탁기,건조기/유포 571-271-3556 (문자요망)

센터빌 CVS근처깨끗한싱글홈 2층 방하나 세탁/가구/취사/인터넷 완비 여자분 즉시 입주가능

571-758-7117

패어팩스 Candem 아파트 5월, 6월, 7월 단기 서브리스합니다. 방 1, 풀베쓰 1, 쉐어 키친, 파킹티켓1, 월 \$800 571-623-0255

애난데일 노바근처싱글홈 아랫층 전체 렌 트 방2/새주방/욕실/워크아웃 703-336-3283

버크싱글하우스지하전체렌트(버크레이 크파크앞)부엌,욕실,세탁, 가구완비,즉시 입주가능,워크아웃 703-505-8866

센터빌싱글지하워크아웃(세탁,주방) 1,000sqft방1,화1\$1,200 470-485-1875

패어팩스비엔나전철역근처 2분거리 방1개, 직장인남자환영

에난데일 K마트 근처 싱글하우스 방하나 렌 트, 주차 넉넉

703-965-2343

571-530-7322

스프링 필드방+거실, 워크아웃, 가구/인터 넷완비, 즉시입주가능, 여자분환영 703-609-4547

패어팩스코스코옆타운하우스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화장실/거실/가구완비 703-362-5425

엘리컷시티롯데에서 10분거리 타운홈 이층방세놓음. 가구완비, 교통편리, 인터넷유포 443-631-7866

443-631-7866

스프링필드 타운홈 2층 작은방 하나 렌트 교통편리, 여자분 환영 571-581-9515

에난데일 예촌앞타운홈 방렌트, 직장인, 학생 환영, 취사가능 703-622-2033

571-243-7027

571-230-2244

센터빌CVS근처, 타운홈이층 작은방하나, 잠만주무실분, 여성분환영

애난데일H마트근처방하나렌트, 남자분환영

센터빌스톤로드방렌트 \$650 유틸포함 703- 474- 9713

챈틀리 롯데근처싱글하우스위층방새놓음 남자분환영 703-344-6273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인테넷, 여자분 \$600 **703-678-7833**

아난데일예촌근처반지하방1/화실/샤워/ 유포,파킹즉시입주가능 703-629-6275

사무실/점포렌트

애난데일사무실콘도렌트800sq 571-237-3411

센터빌던킨뒤환한오피스콘도 렌트 \$1,900,1,200sqft,룸3개,화1,오픈스페 이스,파킹다수,RT29/66/28/286

▶571-239-6054

애난데일지역오피스렌트 오피스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문자요)



부동산 매매

1. Falls Church 콘도 매매 \$224,900 800 sqft, 전부 리모델링, 방1,화1,유틸리 티 콘도비 포함, Mosaic, Gallows Rd, 편리한교통, RT 495/29/50 2. Ashburn 타운하우스 2012년 방3.5, 최고 학군, Dulles Airport RT267/50/28/607

3. Woodbridge 싱글하우스 \$639,000 방3, 화2.5 차고1, 좋은 동네, 좋은 학군, 전 부업그레이드, RT1/95/234 4. South Riding 타운하우스 2014년 \$645,000, 방3, 화2.5, 차고2, RT50/606

▶571-239-6054

Dulles Airport, RT28

Stafford 싱글하우스 \$719,000 완전업데이트된 예쁜 단독 주택, 2011년에 지은집, 방5, 화5, 최고급 자재로 집 전체업 그레이드, 워크 아웃, 넓은 덱, Stone Patio, 새 단지

▶703-813-89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자녀들의 휴가,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촌 2분거리)입니다.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당해 드립니다!

66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99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5월 20일 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광고한달유료게재,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게재중지를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

콘도매매 \$375,000 스프링필드 방2,화2,새카펫,새페인트,탁트인구조,넓 은리빙룸, 발코니2 703-813-8949

콘도매매 \$369,900 스프링필드 밝고 환한집 방2,화1,업데이트 (HVAC,부엌,화장실) 새 카펫,새 페인트,넓은리빙룸, DEN1,넓은발 코니

703-813-8949

1.사우스라이딩싱글홈\$1.19M 방4,화3.5,차고2,5540sf,코너랏,집주인 이관리잘한집,다양한커뮤니티시설 Move-in Ready 2.패어팩스타운홈\$825,000 방3,화3.5,2007년산,굿로케이션,관리가 매우잘된집 ▶703-919-0472

Comming soon 리스트 Annandale 싱글홈 \$890,000 Springfield 싱글홈 \$800,000

South Riding 싱글홈 \$1.2m ▶703-919-0472

콘도 매매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w/메트로 66 근처 세탁기,건조기,발코니, 스토리지+

703-336-3283

1.게인스빌레이크메나사스골프커뮤니티 싱글\$1,060,000 방4,화4.5,차고2,페리오,스크린덱, 4,433sqft,0.3 acre,2004 2.콘도매매\$485,000 밝고환한8층,맥클 린앤드유닛,시원한레이아웃 타이슨스코너/메트로,방2,화2,테라스,차 고2,1,335sqft,엘리베이터 3. Open House 4/13 (SUN) 2-4pm 게인스빌콘도\$425,000, 방3,화2.5,차 고1,1,778sqft, RT29/66, Giant, Harris Teeter, Gateway Shopping mall ▶571-239-6054

에난데일 콘도\$210,000 완전 리모델링된 환하고 밝은 예쁜 콘도, 나 무마루, 새롭게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H Mart 가까움

▶703-813-8949

센터빌중심에 위치한콘도 방2, 화2, 차고1, 도서관앞,1230sqft, 콘도비\$348.77/m, Giant 66/28/29 ▶571-239-6054

1. 패어팩스싱글 \$1,150,000 방4, 화장실4+1, 차고 2, 패어팩스코스코근 처에 있는 멋진싱글홈 2. 패어팩스싱글 \$850,000 방4, 화장실 2+1, 차고 2 밝고 이쁜집, 마루바

닥,넓은 뒷뜰
3. 패어팩스싱글 \$1,300,000
방4,화장실 4+1,차고2 벽돌로 지어진 넓은
사이즈에고급 주택 0.7 에이커
4. 패어팩스싱글 \$1,900,000
방4,화장실 3+1,차고 2, 맨투아초등학교 모던하게지은 멋진새집
5. 옥튼새싱글 \$2,300,000
방5,화장실 4+1,차고2
1.8 에이커의 넓은땅에 지어진새 집, 옥튼 HS
6. 맥클린싱글 \$2,200,000
박4,화장실 4,차고 2, 모던한스타일로 지어

진 멋진 고급 주택, 맥클리 HS
▶703-899-8999

1. 센터빌 타운하우스 \$600,000
방4, 화장실3.5, 랜트수익 \$2,900

2. 레스톤타운하우스\$620,000 방3,화장실2.5, 랜트수익\$3,000 3. 패어팩스타운하우스\$800,000 방3,화장실3.5,호수뷰,차고2,랜트\$3,600

▶703-231-5572 1. 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619,000 방3,화2 단층집으로 넓은 백야드 0.3 에이커 프랜코니아지역으로 교통, 생활시설 편리

망3,와2년승십으로넓은 백야드 0.3에이커 프랜코니아지역으로교통,생활시설편리 시니어거주하기에편리한단층구조 지붕,에어컨등최근교체,계단없슴. 2.매나서스콘도\$330,000 방2,화2 주차공간 편리한콘도,그로서리,병 원,레스토랑,도서관등좋은생활여견

▶703-483-0505 **사업체매매**

2001년부터 애난데일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척추신경클리닉을 시설 일체 포함하여 파격적인 조건으로 양도합니다. 관심있는 분들 연락 바랍니다.

▶571-212-3082

▶571-239-6054

미장원 리스 게인스빌 성업중인 미장원 렌트 \$3,300/m 1,300 sf, 29/66, 세븐일레븐옆

미장원 매매 센터빌 중심 성업중 미장원

센터빌 중심 성업중 미장원 은퇴, NEW HVAC, 좋은 조건, 최근 리모델링 ▶571-239-6054

식당급매 (한식+일식) 센터빌, 챈틀리 VA 연매상 100만+25만,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꼭사실분만 연락바람 443-631-3125

급매 (매매가격:\$59,000) 혼자할수 있는 자영업, 월수입: 5,500~6,500 업종: 캔디배달(VA, MD),주3일근무 ▶Mr. 박: 571-238-9435

▶▶ 앤지부동산 파고.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고심해드립니다 571-550-7658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사장님들! 비지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사업체 매매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화하 매무 상화과 매매 조건들이

II. 정확한 매물상황과 매매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Ⅲ.커머셜/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뛰는 케빈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703-395-3123

▶▶성업중인 오토리페어 (VA) 연매상-\$850,000. 포텐샬좋음 매매-\$38만(실바이어 Only) 571-242-3736

중고매매/기타

소니카메라 - a7m3,a7r2,a7r4 좋은 금액으로구입하세요. 703-225-9746

2014 Chevy Cargo Van \$9,000, 192,000 마일, 핸디맨중고장비포함 703-864-5346

혼다 CRV SUV 2013년 18만마일, 한주인/상태양호 \$6,000 213-767-2381

무쇠가마솥식당용중고큰사이즈 필요하신분 703-401-9997

식당용테이블11개,의자40개중고 상태좋음 703-401-9997 (문자요망)

한국고전가구(오리지날)
35년 이상수집한 100년 이상된
한국고전가구40여점을 은퇴로착한
금액에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이 아닌오리지널입니다.
흥미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703-626-7370 YJ CHOI

혼다오딧세이미니밴2007 26만마일뉴타이어상태굿\$3,000 571-814-8773

각종류의영어서류신청과등록및접수와 해석하면서도와드려요.연락주세요. 703-537-6756 (써니 한)

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구입·등록/기타교통국업무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수업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수학개인과외합니다.(면대면 및줌강의) SAT & ACT준비(대학입시준비반) 및 영재 수학-올림피아드(중, 고등학교준비반) 교육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inyeolchoi@hotmail.com

▶▶우표수집한것팝니다.우표수집하시는 분연락바랍니다.오랜동안여러나라의귀하 고,소중한우표들이새주인을 찾습니다. 301-275-6533

골동품이조가구진품그림, 한국가면고가판 매가능, 일본물건도 있음.

240-796-0093

Frier furnace 4ea, Oil c/L machine 1ea Mix machine 1ea, 반찬 Refrigerator 2ea Cash register 1ea Beltsville, MD20705 443-904-7146

건축/페인트/마루

손싸이딩, 올드하우스 메케닉 크루 구합니다. (타주)

540-680-1571 / 703-955-2827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부엌, 화장실, 에디션, 덱, 팬스, 지붕제너럴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건축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각종집수리일체/지하실, 주방,욕실/전기설비,타일마루/루핑,카펫, 페인트/각종목수일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욕실리모델링 예쁘고실용적인주방과욕실을디자인하고만 들어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페인팅(In,Out),덱메 인터넌스와 클리닝,샌딩,파워워시,핸디맨서 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일 체 / 자체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건축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모든공사,주정부라이센스보유, 책임보험가입,카톡아이디: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정선화 브릿지원메디케어/메디케이드보험 ▶702-962-5305

▶703-862-5395

조은혜종합보험/메디케어&오바마케어신 청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융자

제인 최융자 25년 경력 매입/재융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융자 주택/상업융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모기지네이션 -낮은이자/Cashout/명의변경/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히팅

L&B UNIVERSAL

히팅,에어컨가정용/산업용전문 제일큰규모의 냉난방회사,덕트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힛펌프, Carrier, Trane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 문의: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케리아 웃 장비수리, Ice Maker,플러밍, 지하수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히팅,냉동,냉장,워킹쿨러,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히팅,냉동,냉장,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에어덕트클리닝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스팀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풀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키친리모델링,온수,히터디쉬워 셔,Disposals,상하수도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변기,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물새는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이사/배송서비스전문 -쓰레기/폐기물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이사전문,비지니스폐업,각종철거전문 가정 /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등 처 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선택,확실한만족,귀국이삿짐 포장이 사,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7 700 200 1010

HD 현대 통운 미동부최대운

미동부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 자체창고보관 서비스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세계 어느곳,어디든지가능 ICC 인가업체,100%자체보험확실한세관처리 및서류작성한국에서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안전,신용,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포 장이사,타주,시내이사,자체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우주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개스/히팅/에어콘/역류장치/ 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 업(수해,화재,가구,곰팡이)보험처리가능/용 접(철,스텐,알미늄)/제작및설치(키친후드,

301-222-3277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 그램세일즈 및 전기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시공과마감! 파인애플홈Mr.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571-229-4633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의문제를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계단,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기술자, 영어소통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모든 공사가능. 라이센스소지, 전화상담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703-582-7757

▶703-346-5962

전기공사,페인트리모델링 각종전기,카메라, DATA 24시간출장가능,

유리

JK유리 &Window/상점,가정용유리, 거울 Frameless샤워도어Aluminum,Door설치, MD/VA/DC지역

샤워도어,자동문,식탁유리,거울장식,

특수유리교체 및 특별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깍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육샵에서함께일할경험자를찾습니다. - 피니셔(페인트,스테인) - 카펜터(캐비넷,코리안카운터탑제작) - 프로젝메니져(이중언어) 높은페이와근무시간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2025년 5월 20일 화요일 중앙일보

메디게어 신청 및 보험가입 60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C 플랜·약보험·치과·안경·OTC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내려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703-591-0009 / 703-537-9899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망설이지 마세요.유니버셜이 최고의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LENNOX Carrier 6 784 Carrier, Lennox 전문딜러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페인트

Since 1988

- <mark>▶ 건축ㆍ시공 및 건물ㆍ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mark>
- <mark>▶상가 및 빌딩 신축ㆍ</mark>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mark>▶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mark> · 관리 대행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Repair Doctor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Call 24시간 가능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 ₹ 목수, 타일, 마루, 덱, 캐비넷 샌딩 보수
- ♥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귀국,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타주 차량운송

내려 앉은 콘크리트 올려 드립니다. 새로 만드는것보다 저렴합니다. 안 고치시면 발이 걸려서 넘어집니다.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업 범망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무료겨전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Door to Door Service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USA(SAN DIEGO) USA(NEW JERSEY)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 100%자체보험으로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고려통운

www.HDmovingusa.com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시내이사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20년 전문// ▶귀국 이사 전문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전문 포장 이사
-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보 석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 백금(Platinum) 다이아몬드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돌 반지 팔지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ED . 443-980-1167

용 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융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중앙일보 2025년 5월 20일 화요일

에어컨&이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VA A 라이센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플러맹

씽크 / 디스포져

워러히터 / 물새는것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수도꼭지 교체

썹펌프 교체

에어컨 / 히터 / 힛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03.380.2282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703-813-8949 Huundai 703-813-8150~5

어려운 시기에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체를 찾으십니까?

주인이 26년 운영 후 은퇴하시는

Crab & Seafood 연매출 약 20만불 했던 업체를 소개합니다!

\$65,000

자세한 사항은 전화 주세요. 🕏

Cell: 571-278-8211 (David)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24 hours

7days Service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VA-MD-D.C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 등 일체 " 일단 <u>전화</u>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_910_0400



LOVE HAND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개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미늄) •제작 및 설치
- (키친후드, 닥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센스 소지 301-222-3277

"Better than the Best Quality"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LA 지역 10,000 스퀘어피트 자체 공장과 쇼룸 보유 메릴랜드,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노스캐롤라이나 전 지역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Young Lee



한국산 지브라쉐이드, 전동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트 Total Blackout LLC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최고급 공기정화, 항균 원단, 방염 기능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703,600,9031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a cold one; 시원한 맥주

Susan and Jerry are arranging furniture in their new house. (수전과 제리가 새 집에 가구를 배치하고 있다.)

Susan: I'm glad we bought this coffee table. 수전: 이 작은 탁자 사서 너무 좋아. Jerry: Me too, It looks great, 제리: 정말 그래, 탁자가 멋져.

Susan: Let's have our friends over when we finish decorating the house.

수전: 집안 단장 끝나면 친구들 부르자.

Jerry: That's fine by me. Where do you want to put the piano?

제리: 좋지. 피아노는 어디에 둘까?

Susan: I was thinking in the corner near the window. 수전: 창문 근처 구석에 놓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Jerry: Okay.

제리: 그러자.

Susan: But you can't move the piano yourself. It's too heavy.

수전: 그런데 혼자선 피아노 움직이지 마. 너무 무거워.

Jerry: It's on wheels, It's a snap, 제리: 바퀴가 달려있어, 아주 쉬워

Susan: Now where do we want to hang these

paintings? 수전: 이제 여기 그림들 어디에 걸까?

Jerry: I'm going to have a cold one while you decide

제리: 그건 네가 결정해. 난 시원한 맥주 한 잔 할 테니까.

기억할만한 표현

▶ have (someone) over: (누구를) 집으로 초대하다.

"I want to have my classmates over for a barbecue next Saturday." (다음주 토요일에 같은 반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바비큐 파티 하고 싶어요.)

▶ That's fine by me: 난 좋아 괜찮아.

Jim: "I need to go home early from work on Friday."
(집: 금요일엔 일찍 퇴근해야겠어.)

<u></u>낱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가로열쇠

(1)축구에서, 공을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차는 일. 승부차기에서 음바페의 ~으로 우승 후보였 던 프랑스는 유로 2020 여정을 마쳐야 했다. (2) 예로부터 내려오는 사설 한문 교육기관. 글 방 (3)생강과 계핏가루를 넣어 달인 물에 설탕 이나 꿀, 곶감을 넣고 잣을 띄워 먹는 전통 음 료 (5)냇물에서 고기잡이하는 일. 올해도 복날 에 동네 청년들과 ~을 하기로 하였다 (6)민간 에게 끼치는 폐해 (8)뜻밖에 당하는 불행한 사 고. □벼□ (9)남의 밑에서 졸개 노릇을 하는 사람 (11)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다 스림. ~ 치국평천하. □□제□ (15)웃는 마음 속에 칼이 있음. 겉으로는 웃고 있으나 마음속 에는 해칠 마음을 품고 있음. ㅁ리ㅁㅁ (17)깊 이 들지 못하여 자주 깨는 잠 (19)요행을 바라 는 마음 (20)죄인을 먼 시골이나 섬으로 보내 어 일정한 기간 동안 살게 하던 형벌 (23)윷놀 이에서, 모나 윷을 이르는 말. 모세 ~를 치다 (24)인간관계가 넓어서 폭넓게 활동하는 사람 (25)대가를 바라지 않고 힘을 바쳐 애씀. 자원 ~ (26)부모를 잘 섬기는 아들.

세로열쇠

(1)고향을 잃고 타향에서 지내는 백성. 전쟁으 로 많은 ~들이 생겼다 (2)이름을 직접 쓰고 도 장을 찍는 일 (3)산이나 들의 짐승을 잡는 일 (4)활이나 총 따위를 쏠 때 표적으로 만들어 놓 은 물건. 양궁에서는 화살이 ~의 경계선에 꽂 혔을 때에 높은 점수 쪽으로 판정한다 (5)하늘 에서 떨어지는 물. 빗물 (7)황제를 공경하는 뜻 으로 사용하는 칭호 (10)각 궁궐이나 성의 문을 지키던 무관 벼슬 (12)1798년 나폴레옹의 이집 트 원정군은 사막에서 오아시스와 야자수가 가 까이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아무리 다가가도 접근할 수가 없었다 (13)아주 크고 우묵한 솥 (14)소리를 내지 않고 빙긋이 웃음 (16)다 익지 못한 채로 떨어진 과실 (17)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 그는 거짓말이 탄로 날까 봐 ~하였 다. □□초□ (18)잠결에 소리를 듣는 귀의 감 각 (21)양털 따위의 털을 표면에 보풀이 일게 짠 두꺼운 모직물. 마법의 ~는 알라딘과 재스 민의 사랑을 이어준 일등공신의 역할을 했다 (22)칼질할 때 밑에 받치죠 (23)사기로 만든 국 그릇이나 밥그릇.

스도쿠

łΥ	횽		łY	움		哔	ᅃ	10
哻			掭		믿	łΥ		Ы
0유	ᅶ		맏	읦	łY			
	径	놀	독		ᆂ	샹	5	₹
10		∠				곰		10
14	N	ӷ≥	∜		ſ <u>°</u>	∜	우	
			市	ŧπ	卓		画	己
址		пШ	唑		0显			0위
怔	전0	÷		유	ŀY		추	尽

	7		3	6		9		
1			4		2		3	7
		6	9	8		5	4	
						4		
6					9	3	-	
			7	3		8	2	
3	8	2				7	6	4
		4	2			1		
	5				3		9	

₹.	-0
12	-1
ı.	*1

어 넣어야 합니다.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 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 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

8	6	2	3	Þ	9	1	S	L
ε	S	1	8	L	Z	*	9	6
t	9	4	S	6	L	2	8	3
9	S	8	Þ	ε	L	6	Ţ.	S
S	ι	ε	6	2	8	1	Þ	9
6	L	Þ	9	L	5	ε	2	8
L	Þ	5	1	8	6	9	ε	S
L	3	9	2	S	Þ	8	6	L
S	8	6	ı	9	3	5	L	Þ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위싱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 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Ш		U위'6건 중'6월보 구극건경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Home
	(Phone #)	Cell
	연기독 료	지불방법 Check Bill Credit Card 1년 선납 \$150
	(Subscription Fee)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Card Info	카드종류 VISA Master Amex Discovery 카드륏먼 SEXP. DATE: / CVS: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sign):
ľ	* 11444111111	오 시청이(그드크 아나기즈) 2이 중비단 베타디머 2이이 TILLE 사무이 베타디지 아오 거요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정규대학 및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신 분으로 PCUSA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목회 5년이상 경험 (부목사 포함) 있으신 분 한국어와 영어 소통이 가능하신 분 미국 거주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본교단 P.I.F. 1부 (서식은 www.pcusa.org에서 다운로드) 본인, 사모 및 가족 소개서 1부 (목회 경력, 가족사진 등 포함) 목회비전 1부 (신앙 간증문, 목회 동기 및 목회 철학, 교회 사역 등 포함) 학위 증명서 (학부, 신학대학원) 및 목사안수 증명서 각1부 추천서 2부 (각 추천인의 연락처 기재요망) 최근 1년 내 설교영상 (2편,링크)

Hope Presbyterian Church (Attn. 청빙위원회) 이메일: hopepnc2025@gmail.com

2025년 6월30일(월) 23시 59분 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서류 심사 후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6년 기간 위임 후 재청빙

´이메일: hopepnc2025@gmail.com

(Attn. 청빙위원장)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융자상담환영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개인융자, 카드융자 및 현금화 전문

매매

하숙·렌트

중앙일보

(라스베가스 지역) 가격 \$10만 한국/서울 일주일 매상: \$9,500-\$1만 아파트렌트 부부 운영 적합 (213)858-6332

동대문근교 한달렌트비 \$1,800 가장 작은 광고로 장/단기및 시설 완비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808)989-5424 한국 010-2807-0619

치질 - 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풀림-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뼛속 독소 제거 불면증 이명 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OC (213)255-1410

구인, 자동차, 집

'라이센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들러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메이져은행에서 융자 거절된분 환영 다쓴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융자 가능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융자 가능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집 모기지 페이먼 힘드신분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Leisure World Seal Beach, CA

주택 구매자 조건

-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경우 한분만도 가능)
-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성민 산삼 한방 병원 서영수 한의학 박사와 중풍 증상이 크게 호전된 델휘노 고메즈 씨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작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 /**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ADTAIR

예방이 최고입니다." 연결가능

무료 초인종 카메리





Since 1874



877,373,0265

남가주 최대

한인담당 매니저 제임스 정을 찾아주세요.

Dir. (714)873-8724 무료상담 "Authorized Dealer

1249 Blalock Rd #201,Houston, TX 77055

(832)605-4890 - (281)501-2623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사고후유증
 ✓ 손, 발통증 및 저림
- ✓ 척추디스크통증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Blue Choice
- Anthem
- Aetna
- United Healthcare/GEHA CareFirst
- Innovation Health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ar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7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라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